

이란

정보수정일자: 2009. 12. 31

작성처: 테헤란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2
- 한국과의 주요이슈 /7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8
- 주요 산업 동향 /12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6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16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8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20
 - 대한수입규제동향 /24
 - 관세제도 /24
 - 주요인증제도 /25
 - 지적재산권 /27
 - 통관운송 /27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29
- 외국기업 투자동향 /30
- 우리기업 투자동향 /35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36
- 진출형태별 절차 /37
- 투자입지여건 /40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42
- 조세제도 /44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45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46
- 물가정보 /49
- 바이어발굴 /50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52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57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58
- 이주정착 가이드 /60
- 출장가이드 /63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80
- 유관기관 웹사이트 /81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이란회교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Iran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 페르시아만 동부, 카스피해 남부 ○ 이라크, 터어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7개국과 접경 ○ 동경 45-62도, 북위 26-39도
면적	165만km ² , 한반도 면적의 7.5배
기후	대륙성 기후(4계절) 남부 지방은 아열대성 기후
수도	테헤란 (인구 800만명; 2009년 추정)
인구	7,420만 명(2009년 추정)
주요도시	마샤드, 이스파한, 타브리즈, 시라즈
민족	페르시아 51%, 아제르바이잔 24%, 길락-란다란 8%, 쿠르드 7%, 아랍 3%, 아르메니안 1%
언어	이란어(Farsi)
종교	회교 시아파 94%, 회교 수니파 4%
건국(독립)일	1979년 2월 11일
정부형태	정교 일치 이슬람공화국 최고지도자 중심제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Ayatollah Seyyed Ali Khamene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임일: 1989.6.4 - 임기: 종신 ○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 Mahmoud Ahmadinej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임일: 2009.8.5 - 임기: 4년

자료: 이란 통계청, EIU (2009.8월)

나. 경제지표

GDP	2,603억 달러(2008)
실질경제성장률	0.5%(2009)
1인당 GDP	5,304달러(2008)
실업률	12.9%(2009)
물가상승률	16.8%(2009)
화폐단위	Iranian Rial(IR)
환율	US\$ 1 = 9,900Rial(2009년 평균)
외채	191억 달러(2009)
외환보유고	813억 달러(2009)
산업구조	서비스 44.9%, 공업 44.3%, 농업 10.8%,(2008)
교역규모	수출 675억 달러, 수입 558억 달러(2009)
교역품	수출: 석유가스, 농산물, 카펫
	수입: 자동차 및 부품, 휘발유, 산업기계, 전기전자 제품

주: '09년 입수한 최신 통계임.

자료: 이란 중앙은행, EIU (2009.8월)

다. 한-이란관계

체결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보장협정 : 2006. 3월 발효 ○ 이종과세방지협정 : 2006. 7월 서명(발효 대기 중) ○ 무역협정 : 2007.11.7 발효 (서명은 2006.7월) ○ 항공업무협정 : 2001.3 .12발효 (서명은 1998.10월) ○ 해운협정 : 2004년 9월에 최종문안에 가서명후, 현재 답보상태
교역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43억 4,256만 달러 - 2009년 7월: 21억 3,444만 달러 ○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82억 2,306만 달러 - 2009년 7월: 27억 9,991만 달러
교역품	<p>우리나라 수출: 철강제품,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가전제품 등</p> <p>우리나라 수입: 원유, LPG, 기타 석유화학제품, 과실류</p>
투자교류	자료 없음
교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 현황 (08.12.31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포 총수 : 614명 (남 : 414, 여 :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권자 : 43명 . 일반체류자 : 513명 . 유학생 및 가족 : 58명 - 직업별 구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관 직원 및 가족 : 8% . 지상사원 및 가족 : 19% . 건설사 직원 및 가족 : 42% . 개인사업가 및 가족 : 12% . 유학생 및 가족 : 10% . 국제결혼자 : 7% . 기타 : 2%(양궁코치, 교수, 교사, 목사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이란 한국대사관

2. 정치 사회 동향

가. 이란의 대내외 정세

1) 이란 정치제도의 특성

- 1979 년 호메이니옹의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슬람 성직자 주도 신정정치(theocracy) 구현
 - "벨라야티 파키"(Velayat-e Faqih : Guardianship of the Islamic Jurists)라는 통치 이념에 따라 이슬람교와 민주공화제적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정치구조 수립하고 있다.
- 최고지도자 산하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위치
 - 최고지도자는 외교안보, 군, 정보기관,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 행사
 - 삼권분립형 공화제적 기관에 추가로 헌법수호위원회, 국정조정회의, 국가지도자운영위원회,
 - 혁명수비대 등 이슬람 가치 수호를 위한 기관이 병존하고 있다.

2) 이란의 대내외 정책 기조

- 자주적 핵 기술 개발과 대 팔레스타인 지원 등을 앞세워 독자적 위치추구 및 국내외 서민층의 지지기반을 확보 확보
 - 우라늄 농축 등 핵 활동의 지속을 통한 자주적 핵연료주기 확보
- 국제적(유엔, 양자) 제재상황 등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역강국(region power)으로서의 위상 확보
- 에너지 개발, 기타 기간산업 개발을 위해, 외국 기업 투자 유치, 국영 기업 민영화 추진 중
 - 지도자들의 민영화 가속화 촉구 등
 - 걸프만과 카스피해의 엄청난 석화자원을 배경으로 이란의 지정·지경학적 위치(자원 물자의 통로)활용에 부심

3) 핵 관련 정책

- 이란의 핵활동의 기본목표는 독자적인 핵연료주기의 확보
 - 우라늄 농축 등 핵활동은 핵비확산조약(NPT)에 보장된 권리이자 불가양의 민족적 권리로서 유엔이나 서방이 요구하는 핵활동 중단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란 핵프로그램의 군사적 전용을 발견치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란 핵프로그램의 평화적 성격을 강조한다.
 - 석유 및 가스 등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고 환경 오염 방지 등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한 원전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 이슬람 교리나 최고지도자의 교시에 따라 이란은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독일(P5+1)로 대표되는 서방과 IAEA 와의 원칙적 대화 의사 표명
- 현재 이란은 서방의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서방은 대화와 압박 병행 전략(dual track approach)에 따라 3 차례에 걸친 유엔 경제 제재(2006.12 월, 2007.3 월, 2008.3 월), 미국 및 EU 의 단독 제재(주로 금융제재) 부과
- 이란측과 서방은 각자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package proposal)을 내놓았으나, 서방측이 제시한 한시적인 농축확대 중지 요구에 대한 이란측의 부정적 반응
 - 서방측 구상은 P5+1 외무장관 런던 회담시 마련된 것으로 “동결 對 동결”(freeze for freeze : 6 주간의 협상 기간을 설정하고, 동 기간 중 P5+1 은 유엔 제재 추가를 중지하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활동 확대 중지)이 핵심이다.
- 09.4.8 미국은 이란 핵문제 관련 직접 대화 의사 표명
 - 09.4 월 이란측도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것임을 표명 (4.15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연설, 4.22 이란 NSC 성명 등)한 바 있다.

4)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지역강국(regional power)으로서의 위상 확보

- 이란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유일한 비아랍국가이며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파로서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소수파(minority)이나, 이집트 보다 많은 7 천만 인구와 한반도의 7 배에 이르는 영토를 가진 대국이다.

- 이란인들은 과거 페르시아 문명과 제국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전통적으로 자신들을 지역 강국(regional power)으로 인식하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서부, 타지키스탄 등 페르시아어 사용 지역 외에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바레인 등 과거 영토를 아직도 영향권으로 인식한다.
- 실제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침공 이후 아프간과 이라크 내 치안불안 등으로 인한 지역 권력의 공백을 매우면서 지역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 이란은 이슬람권의 단합, 반미 및 반 이스라엘 연대 구축, 경제제재로 인한 대외경제협력 위축 방지를 추구해 가면서, 지역 안정자(마약퇴치, 대테러 활동 등)로서의 역할과 기여 강조하고 있다.
 - 특히, 중동지역에서는 아프간 및 이라크 안정화와 관련, 지역적 안정자의 이미지를 강조해 나가고 있으며, 아프간 카르자이 행정부 및 이라크 말리키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긴밀한 협력을 표명한다.

5) 이슬람 체제 안정 추구

- 이란은 1979 년 이슬람 혁명 직후 호메이니의 출산장려정책으로 30 세 이하의 총 7 천만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인플레이, 고실업,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와 현대 사회에 대한 동경심 등이 현 이슬람 체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다.
 - 국제제재로 인한 경제난, 비효율적 국영기업(총기업의 80%수준) 위주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 각종 국가 보조금 철폐, 투자유치 노력 강화 등 경제개혁 추진 중이다.
- 이란 최고지도부는 핵기술의 확보를 추구해 나가면서, 동시에 국내적 경제구조 개선, 정치 세력간의 균형과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6) 대선결과 및 최근 정국 동향

- 2009 년 6 월 12 일 치러진 제 10 대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 현대통령과 무사비 개혁파 후보간의 치열한 대결을 예상했으나, 전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62.63%의 득표율로 무사비(33.75%)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2013 년까지 4 년동안 재집권하게 됐다.
 - 대선결과 발표 직후 유럽, 영국,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선거기간 동안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보도하였고, 무사비를 지지하는 개혁파 세력의 대규모 반대집회 계속되며 혼란이 가속화됐으나, 보수파 정권의 강경진압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경고 및 대통령 지지로 시위동력은 많이 약해졌다.
- 권력을 둘러싼 의회의 계파간 이해관계 때문에, 9 월 3 일에 진행된 집권 2 기 첫 내각의 의회인준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으나, 인준표결 결과 장관 내정자 21 명 중 교육, 사회복지, 에너지장관 등 3 명을 제외한 18 명에 대한 인준이 가결됐다.
 - 3 명이 부결되긴 했지만 석유, 내무, 외무, 국방 등 핵심부처의 장관 내정자들이 모두 인준을 통과함으로써 아흐마디네자드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대외관계

1) 미국과의 관계

1979년 회교혁명 및 주이란 미국대사관 점거 사건 이후 1980.4월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됐다.

1998.1월 하타미 대통령이 미국과의 대화 촉진을 제안함에 따라 양국 간 민간 교류가 다소 활성화 됐으며 클린턴 정부의 대 이란 제재 완화로 관계 개선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2001.1월 부시 정부 출범 이후 2001.3월 대이란 무역 및 투자 금지 조치가 갱신되고 2001.7월 이란 및 리비아 경제제재법이 연장됨에 따라 양국 관계는 답보 상태에 접어들었다.

9.11 테러 사태와 관련, 하타미 대통령이 테러 행위를 즉각 비난하고 나선데 이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축출 및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양국 간 협조가 이루어졌으나 2002.1월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이란을 북한,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적하고 2002.3월 핵 정책 보고서에서 이란이 7개 핵 공격 대상국의 하나로 밝혀지면서 양국 관계는 개선이 어려운 상태로 반전됐다.

이후 2003년 이라크 전쟁 시 이란은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였으며 이라크전 종료 후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재건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등 대미 관계 개선 가능성이 비춰지기도 했으나 2005.8월 보수강경 노선의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출범으로 이란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다.

2008년 10월 미국정부는 테러지원협회가 있는 탈레반, 하마스, 헤즈볼라 등 무장테러 세력에 대한 지원 협의를 물어 국방부, 이란혁명수비대 및 4개의 금융기관(Melli Bank, Mellat Bank, Saderat Bank, Kargoshaee Bank)에 대한 대달러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경제제재조치를 발동했으며, 2008년 11월에는 급기야 미국 금융기관의 모든 대 이란관련 자금거래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역대 미국이 대이란에 대해 취했던 경제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대 유럽 관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EU는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조하나 경제 문제는 독자노선을 추구하고,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를 반대하고 대 이란 관계 강화에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하타미 전 대통령은 회교혁명 후 이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1999.3월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 있다.

EU는 정기적으로 이란과 Troika 회담 (현재, 과거, 향후 EU 의장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이란 투자와 신용 공여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 3차에 이르는 UN의 대이란 경제제재 및 미국발 경제제재로 인해 대 이란 투자 및 자금유자 등이 답보 상태에 있다.

EU와의 관계 강화는 이란의 국제적 고립탈피와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압력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출범 이후 이란의 핵 활동 재개와 관련해 IAEA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나 동 문제와 관련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08년 6월 EU는 이란 Melli 은행의 유럽내 자산을 동결시킨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3) 대 아시아 관계

이란은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 회복을 위한 대외관계의 기본 축을 EU 및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국과의 관계 강화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이란은 경제 회복에 있어 동북아 3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타미 전 대통령은 2000년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이란의 현 정권 출범 이후 이란 핵 문제가 IAEA 등 국제사회에서 핫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국과 에너지와 산업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2005.10월 한국산 수입승인을 규제하는 등(06년 1월 완전 해제) 다소 소원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2006년 들어서는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이 5월 발효된 데 이어 7월에는 2002년 이후 중단되어 왔던 경제공동위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이종과세방지협정 및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교역, 에너지, 산업 협력에 관하여 합의한 바 있다.

4)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란은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지지 및 철저한 반이스라엘 정책을 견지해 온 바,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경우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등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5) 지역 협력

과거 이슬람 혁명, 이라크와의 전쟁 등으로 야기된 주변 아랍국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하타미 정권 시절 대외 선린외교에 따라 크게 개선된 바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와의 관계 개선은 페르시아만 지역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2001.4월에는 예멘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해 지역 안보, 산업협력 등 양국간 현안 사항에 대해 협의했으며, 과거 이란과 중동의 맹주를 다투던 이집트도 2002년 외무부장관의 발언을 통해 이란과의 관계 회복 의사를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이란은 이슬람 국가 간 지역경제협력기구인 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를 통한 지역 간 협의를 강화하고 OIC(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의장국 지위를 활용해 이슬람권의 단결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구 소련 붕괴 후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 개발 및 역외접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내륙국의 페르시아만 Access 역할을 내세워 정치 경제적 협력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국산 수입 P/I 승인 규제

1) 내용

- 한국산 수입 Proforma Invoice 승인 규제
 - 이란은 핵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제재하기 위해 2005. 10월 한국산 수입 Proforma Invoice에 대한 승인을 중단했음.
 - 11월부터 수입승인이 일부 재개되었으며 2006. 1월 동 조치는 완전 해제됐으나 IAEA 등 국제 사회에서의 이란 핵 문제 추이에 따라 대 이란 수출은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실정임.

2) 대응 방안

- 이에 한국정부는 대 중동 최대 수출시장인 이란에서의 한국산 제품 수입 규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지난 2006년 7월에는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무역협정을 맺음.

2006. 7월 한-이란 경제공동위 개최 결과

- 장소: 서울
 - 수석 대표: 한국 측 통상교섭본부장, 이란 측 광공업부 장관
 - 주요 논의 결과(합의의사록)
 - 교역: 양측은 무역협정에 위배되는 어떠한 조치도 피할 것을 명시함.
 - 에너지 협력: 에너지 및 산업 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운용토록 명시함.
 - 산업 협력: 기술이전, 합작투자, 중소기업 협력 등에 노력하고 전자, 철도,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함.
 - 기타: 금융, 문화, 농업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
 - 협정 체결: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무역협정(투자보장협정은 2006. 5월 기발효)
- 2007년 3월 KOTRA는 ITPO(이란 무역진흥청) 및 OIETAI(이란 투자진흥청)와 MOU를 맺고 상호 경제 협력의 기틀을 마련
 - 2007년 9월 한국에서 '페르시아 워크', 이란 수출 상담회, 이란 투자설명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전시공사(IIEC)와 KOTRA, KINTEX 3자간 MOU를 체결한 바 있음.

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대 이란 투자 요청

- 이란은 32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산 제품 수입 시장으로 이란 정부는 제품 판매뿐 아니라 이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함.
- 이에 2007년 3월 KOTRA와 OIETAI(이란 투자진흥청)는 상호 투자 진흥(MOU)을 맺고 IKIC(한-이란 투자 위원회: Iran-Korea Investment Committee)를 개설, 양국의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정보 공유 및 상대국의 자국 투자 시 적극적 협조를 약속했음.
- 그러나 이란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투자법이 미비하고 과실송금 보장의 모호성으로 인해 우리 업체의 이란 투자가 확대될지 여부는 미지수임.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연도별 거시 경제 지표

이란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GDP(US\$ 십억)	156.8	189.3	222.9	286.1	337.3	359.9
실질 GDP 성장률(%)	5.1	4.7	5.8	7.8	6.5	0.5
소비자물가 상승률(%)	14.7	13.4	11.6	17.1	25.5	16.8
인구(백만 명)	70.0	70.8	71.6	72.4	73.3	74.2
상품 수출(US\$ 십억)	43.9	64.4	76.1	97.4	97.7	67.5
상품 수입(US\$ 십억)	38.2	43.1	50.0	56.6	67.2	55.8
경상수지(US\$ 백만)	1,442	16,637	20,402	34,081	19,289	1,124
외환보유고(US\$ 백만)	32,959	45,459	58,459	82,059	96,559	81,309
외채(US\$ 십억)	20.4	21.3	20.1	21.0	21.9	19.0
평균환율(US\$ 1당 IRR)	8,614	8,964	9,171	9,281	9,429	9,900

주: 2008년은 추정치, 2009년은 전망치

자료: EIU(09'.8월)

나. 경제 정책

1950년 석유 산업의 국유화 단행 이후 이란 경제는 석유 부문에 대부분의 수입원을 의존해 오고 있다. 혁명 전 팔레비 정권은 석유 자원 고갈에 대비, 외자 도입 및 시장 개방 정책을 통해 비 석유 부문 개발에 치중한 바 있으며, 1978년까지 5차에 걸쳐 의욕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 및 농업 생산 위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1979년 회교 혁명 이후 이슬람정신에 입각한 사회변혁 시도와 1980~1988년 간의 대 이라크 전쟁 기간 중 전시 체제 확립에 국력을 소진함으로써 경제 개발 사업 추진 여건이 미약했으나 88년 종전 후 라프산자니 대통령이 취임, 혁명정부의 의욕적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했다. 연간 110억 \$의 외자도입을 포함, 미\$ 1,190억을 투자해 연평균 경제성장률 8% 등 주요 산업 재건 정책을 추진했으나 생필품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원 배분을 왜곡시켰고, 과도한 투자 지출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급격한 수입 증대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계획치를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외채 증대(약 300억\$)로 1993년 대외 지불정지(Default) 사태를 초래하기도 한다.

1994년 이란정부는 외환통제 강화, 수입억제 등의 긴축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통해 수입 규모의 대폭 축소로 매년 40억 달러 상당의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 이를 외채 상환에 총당함으로써 외채 축소 및 대외 신인도 회복에는 성공했으나 과도한 수입억제에 따른 투자부진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해 이란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는 구조적 모순을 나타냈다.

1997년 8월 취임한 하타미 대통령은 2001년 6월 재선됐으며 기존의 경제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 및 국내생산 증대 계획을 적극 추진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고용증대, 다중 환율 체제의 단일 환율체제 전환, 경제성장을 6% 달성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해 제3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했다.

동 경제개발 계획 추진에 있어 투자 자원 마련이 이란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였으나 1999년 초부터 시작된 국제 고유가 행진으로 외환 수입이 크게 늘어나 이란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란 외환 수입의 85%는 석유 수출액으로 충당되는데, 2003/2004년도의 경우 석유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27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그 동안 이란의 환율제도는 외환용도에 따라 공식환율, 시장환율로 이 중 환율제도를 채택해 시행해 왔으나 2002년 상반기부터 단일 변동환율제도로 변경됐다.

이란의 경제정책 기조는 각 산업 부문의 선 자급자족 후 수출산업화 진전을 위한 산업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WTO가입을 위한 일환으로 점진적인 수입 법규 완화 조치가 병행될 것으로 전망되나 자국산 산업 보호를 위해 품질에는 상관 없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

국내 경제정책의 기조는 사회 경제적 정의와 지속 성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변화 방향은 정부, 공기업의 부패 청산, 일부 대기업이나 재벌 또는 산업에 편중된 성장보다는 극빈층, 저소득층 등 서민을 위한 경제, 농업 등 낙후 부문의 균형적 성장, 소득의 재분배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전임 하타미 대통령 집권 하에서도 보수적 최고권력층과 이미 의회를 장악한 보수파가 외국 자본 등을 활용한 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에 제동을 걸고 고실업, 고율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민생 기초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의 체제유지적 정책을 지속해 왔는데, 일반 서민의 지지를 받는 신 정부에서도 이러한 민생 위주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등 일부 재벌의 독점체제를 지양하고 민간 중소기업 진흥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실질적 국영 내지 국가 통제 체제인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용자와 민간 생활 지원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 개발은 2005.3.21부터 시행된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 석유 수입 배분 구조 개선, 빈곤층 소득 증대 및 물가 억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의 주수입원이자 국가 기간 산업인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일부 세력의 기득권화, 외국자본의 과중한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관리 강화 및 각종 프로젝트 추진 시 자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이후 자국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시장 폐쇄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어 외국 상품의 이란 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 2006년 4월, 58개 품목 대상으로 이란 자국산만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006년 5월 핸드폰 수입관세율을 기존 4%에서 60%로 대폭 인상했음.

그러나 이러한 시장폐쇄적인 조치들이 이란 국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8월에는 광공업성장관 등 주요 경제 관련 관료들이 경질된 바 있다.

또한, 2008년 5월에는 핸드폰(2007년에 60%에서 25%로 이미 인하)을 포함한 주요 수입품 관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2) 관세 인하 주요 수입품 리스트

- 핸드폰 완제품 수입관세 25%에서 10%(SKD 관세율은 10%에서 4%)
- 냉장고 수입관세 41%에서 31%
- LCD TV 수입관세 46%에서 36%
- 진공청소기 수입관세 46%에서 31%
- 기타 가전제품 수입관세 51%에서 31%

원래 자동차 수입관세율 역시 90%에서 75%로 인하하고자 했으나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대외경제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이란을 적대시 하지 않는 국가와는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 부문에서도 자국화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외국 기술과 자본, 장비는 적극 활용할 뜻을 밝혔다.

또한, 이란은 2006년 7월 2일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 국영기업 지분의 80%를 민간부분으로 이양할 것 임을 발표했다.

최근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도입 목적도 있겠으나 재정 조달 어려움 극복을 위해 외국투자의 촉진 및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짙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최신 경제 동향

1) 경제성장

이란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0 년에서 2004 년 사이 이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0.9%였으나, 2005년에는 7.2%를 기록했다.

이에 광공업부 및 기획부 주도하에 8%대의 경제성장을 제고를 위한 은행이자율 하향 조정, 수입 관세율 인상, 석유를 중심으로 한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증진 등 금융 및 재정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2006년 4.5%를 기록,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최근 이란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인플레이션율은 17.1%를 기록했으며 2008년 말까지 25.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 수치조차 이란 정부의 공식발표일 뿐,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율은 40% 이상 수준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이란은 전형적인 공급자 시장으로 수요공급의 원칙에 상관없이 신년 노르주(매년 3월 21일)를 기해 앞다퉈 제반 가격을 올리는 악 관행이 있어 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2~3 년간 부동산 가격이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폭등세를 보여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2005년 12월 이란을 방문한 IMF 경제 자문단은 휘발유 가격에 대한 정부보조금 제도를 개혁해 오일달러가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란 경제의 유동성 관리 및 향후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면에서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란 정부는 2007년 6월부터 휘발유 보급 할당제를 시행, 1일 배급량을 일반 자동차는 3L, 택시 20L, 외교차량 20L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Smart Card 보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시행일부터 이란 전역에서 주유소 폭파사건이 있어,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이란 광공업부 장관에 이어 석유부 장관 및 기획부(Iran Management and Planning Organization) 차관의 사퇴 및 경질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유가급등으로 원유판매수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반대로 곤두박질치고 있어 이란의 산업육성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는 2007년 11월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과 경제학자들이 참석한 “경제문제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불거지면서 이란 대통령이 일부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를 종용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를 들어, 이란 정부는 제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6월 이란산 휴대폰 생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휴대폰 수입관세율을 4%에서 60%로 긴급 인상, 수입산 휴대폰의 진입을 억제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시행 초기부터 휴대폰 수입업자들의 반발이 거셌으며, 이란산 휴대폰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경제학자 들로부터 나타났다. 결국 이란산 휴대폰 생산은 지지부진한 반면 밀수시장의 확대로 시장 이 교란되는 부작용이 발생, 결국 휴대폰 관세율을 기존 수준으로 조정했다.

2) 문제점

이란 경제는 최근의 고유가 추세에 힘입어 석유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있으나 재정 적자, 인플레이, 리알화 약세, 오일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이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10년까지 연평균 9.9%를 목표로 운용 중인 물가상승률은 이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12%대(실제 수치는 그 이상으로 알려져 있음)를 상회하는 실업률도 이란 경제의 당면 과제이다.

또한 2006년 7월 최고지도자의 명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영화 정책은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매우 늦어 지난 2007년 7월 최고지도자는 이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 보다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라. 향후 전망

이란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석유의존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비효율적인 경제 운용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현재 당면한 고실업 및 고물가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란의 핵 개발 의혹에 따라 서방 국가들의 은행 거래 중단 및 교역에 차질이 가속되고 있어 향후 핵 문제 해결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또한 과도한 정부 보조금 축소, 민영화 가속, 관료주의 및 부패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개관

이란의 산업화율은 약 45%로 중동 제1의 산업국으로 꼽히고 있으나 산업수준은 SKD 수준의 단순조립 단계이다. 현재까지는 품질보다는 생산량 확대에 주력해 왔으나 향후 자국 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분야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림수산업이 10.4%, 석유가스산업 27.9%, 광공업 16.7%이고 서비스업이 45%이다.

이란 산업 부문의 약 70%가 정부소유 또는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이 갖고 있는 효율성 및 생산성 저조라는 한계점에 봉착한 상태이다. 이란 정부는 국영기업 부문의 민간 이양을 제4차 경제개발계획(2005.3~2010.3)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수립하고, 2006년 7월 최고 지도자의 명령으로 적극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석유의존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수입대체산업 육성과 수출 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계류, 철강, 석유화학 부문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란은 자국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대부분 원유수출이나 외국인 투자유치로 조달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2004년까지는 국제원유가 상승에 힘입어 완전한 성장기조(실질 성장률: 5~7%대)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현 아흐마디네자드 행정부 집권 이후 평균 4% 대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나. 석유화학 산업

타이어, 플라스틱 용기, 섬유, 페인트, 세제, 접착제, 화학비료 등 제품과 중간재를 망라하는 석유화학 산업은 이란이 가장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 분야이다.

이란은 원유에 편중된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자 석유화학 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해 과거 5년 동안 외국자본 117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그 결과 생산과 수출이 증가일로에 있다.

현재 이란은 매년 85억 달러 수준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55억 달러 수준 가량을 수출하고 있다. 이 중 한국, 일본으로 41%가 수출되며, 그 다음으로 중동 24%, 인도 10%, 중국 9% 순이다.

향후 이란은 2024년까지 생산량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끌어 올려 세계 시장에서 6%, 중동에서 32%를 점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Bandar Imam 지역에 Special Petrochemical Economic Zone을 설치해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차기 경제개발계획(2010~2015)기간 중 123억 달러를 투자해 27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제품은 이미 항공기, 자동차, 주방기구 등에서 금속 소재를 대체하고 있어 향후 시장규모가 급속히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은 원료 조달이 용이하고 저렴한 전기사용료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동 분야에 US\$170~20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 투자 금액 중 120억 달러는 정부 부문에서, 나머지는 외국 및 민간 부문에서 자원 마련) 동 분야의 핵심 기술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소수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관련 핵심 기술의 개발 촉진 및 라이선스 보유 기업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다. 에너지 산업

이란의 에너지 산업은 국영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석유 및 가스로 대표되는 이란의 에너지 산업은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점차적으로 민간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 가장 활발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석유 및 가스 분야이다.

이란은 자국 석유산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해 오다 89년부터 석유생산 목표달성을 위해 수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외국 메이저 석유회사의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란의 국영 석유공사(NIOC)는 10여 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외국 회사들에게 Buy-Back 형식으로 개방했으며, 1996년 호르무즈해 협의 해양프로젝트(6개) 및 페르시아만 미개발 유전(3개)을 추가 개방했다. 이에 따라 96년 이후 영국 Pell Fridchmann사, 이란 IOEC사, 프랑스 Total사 등이 Buy-Back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1) 석 유

BP(2008.6)에 따르면 2007년말 기준, 이란의 원유매장량은 1,384억배럴로 전세계 2위(11.2%)이며, 생산량은 4,401천 B/D로 전세계 4위(전세계의 약 5.4%) 수준, 국내 소비량은 약 1,621천 B/D임

2) 가 스

이란의 가스매장량은 27.8tr m3로서 전세계 가스매장량의 15.7%를 점하고 있음. (세계 2위 국가, 1위는 러시아) 2007년 기준 연간 가스생산량 약 111.9 Bn m3로서 99% 이상이 내수용

세계 최대의 가스 매장지역인 이란남부 페르시아만의 South Pars 지역에 대형 가스 유전을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동 가스 처리 배후시설을 Assalluyeh 지역에 건설 예정

□ South Pars 가스전 개발 개요

- 1~3 단계: 프랑스 Total 사가 97년 획득, 투자비 약 20억 달러(Total 사 40%, Petronas 사 30%, 러시아 Gazprom 사 30%)

- 한국의 대림 건설이 1단계 공사 중 On-Shore 천연가스 육상처리시설(수주액 1억 4,000만 달러) 공사를 1997년 1월 5일 프랑스 Total 사로부터 하청받아 2002년 공사 완료함. 삼성 중공업은 1단계 공사 중 Off-Shore 해양설비 건설(수주액 약 1억 달러) 공사를 1999년 7월 18일 프랑스 Total 사로부터 하청 받아 2002년 중 공사 완료함.
- 한국의 현대건설은 2~3단계 공사 중 On-Shore 부분인 천연가스 처리시설 건설(수주액: 9억 5,000만 달러, 4개 Trains, 일산 20억 cubic feet)을 1999년 4월 수주, 2002년 초 공사 완료. 가스 송수관 건설(수주액: 1억 달러, 105km 가스수송관 건설) 공사는 1999.8. 24 수주했으며 2002년 초 공사 완료함.
- 4 ~5단계(천연가스 육상처리시설 건설)
 - 발주처: 프랑스 Total Fina Elf 社
 - 공사 금액: 16억 달러
 - 공사 내용: 일산 20억 입방피트 천연가스 처리시설
 - 참여 업체: 현대건설이 2002. 9월에 수주
- 6 ~8단계
 - 발주처: Petro Pars
 - 공사 금액: 12억 달러
 - 공사 내용: 일산 12만 배럴의 농축가스 및 12만 8,000 입방미터의 메탄가스 처리시설
 - 참여 업체: 대림컨소시엄단(일본 Toyo, 한국 대림, 이란 IDRO)
- 9 ~10 단계
 - 발주처: Pars oil & Gas Company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 공사 내용: South Pars 해상가스전을 개발하여, Assaluyeh 에서 처리시설 공사
 - 공사 금액: 12억 달러
 - 참여 업체: GS 건설이 2002. 4월에 수주
- 그 외 11~24단계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개발 시작단계 또는 입찰공고 진행 중임.

라. 석유 의류 산업

이란의 석유 산업은 고용 인원이 11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산업으로 그간 석유류 완제품의 경우 국제 입찰 방식에 의한 정부구매를 제외하곤 수입 금지 품목으로 분류된 탓에 연간 수요의 30% 이상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될 정도로 수요량 대비 생산량이 저조하다. 최근 석유류 수입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져 편법적으로 수입되던 물량의 대다수가 공식 수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기계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편직기 중 약 50%가 노후화되어 대체수입의 불가피성과 제4차 경제개발 계획의 본격 추진에 따라 기계류의 수입을 장려하고 있어 석유 제조 기계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재국 생산기술이 낙후하여 생산 실적은 전무하다. 연간 4,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직기류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3년 하반기부터 품질 고급화를 통한 수출산업화로 발돋움하기 위해 일본의 니치멘사와 공동으로 석유산업 현대화 계획에 착수하고 있으나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 저가 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향후 산업전망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저가 중국 제품의 유입 확대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가동률도 현저한 둔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마. 자동차 산업

이란 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술력 향상 및 국산화를 위해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의 현지 합작공장 설립을 국책사업으로 육성해 왔으며 1995년부터 2003년 8월 말까지 완성차 수입금지 조치를 병행해 왔다. 그러나 2003. 9.1일부로 완성차 수입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했으며, 2005년에는 수입차 부과 관세를 90%로 낮춰 매년 일본, 한국, 프랑스 등의 외국산 완성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현지에서 조립생산 되는 차종은 PEUGEOT(프랑스), PRIDE(한국), 무쏘(한국), 베르나(한국), 리오(기아), 맥시마(일본)등이 있음. 2002년도에 53만 대 정도가 생산되었으며 이 중 65%는 IRAN KHODRO사, 24%는 SAIPA(기아 프라이드 현지 조립생산), 13%가 합작법인 및 현지 기업에 의해서 생산됐다. 2003년에는 약 75만 대, 2004년에는 90만 대, 2005년에는 약 100만 대가 생산됐으며, 2006년에는 전년 대비 9.61%가 증가한 110만 대가 생산됐다. 이란의 승용차 보유대수는 공식집계가 되지 않고 있으나 업계 추산 공식 자료에 의하면 약 1,000만 대의 자동차가 운행 중이며 이 중 60%가 1990년 이전 모델로 노후화되어 대체 수요가 매우 큰 상태이다. 최근 이란은 가장 오래된 모델인 Paykan을 노후 및 환경문제로 생산을 중단했다.

최근 이란의 자동차 생산동향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Total Heavy vehicles	12,427	19,403	35,976	35,696	24,446
Total Light vehicles	519,923	732,219	864,695	969,182	1,077,095
Total production	532,350	751,622	900,671	1,004,878	1,101,541
% increase	--	41%	19.83%	11.56%	9.61%

자료: IDRO(2007), 2009sus 9월 현재 최신 통계

이란의 자동차 및 부품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프랑스, 한국, 일본, 독일 순이다. 이 중 프랑스, 한국은 이란과 합작공장을 설립, 자동차 부품의 지정수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완성차 수입 시 고율의 관세부과(90%),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의 현지 투자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이란정부는 2007~2008년 이란 회계연도 내에 자국 생산대수가 연 12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자국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자동차 공급 부족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차 등의 시장진출로 차량 판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란의 주요 자동차 회사는 최근 자체 차량 판매가를 일부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 했고, 앞으로는 인근국 수출 강화 등 새로운 자동차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6년에는 시리아와 이집트에 이란의 자체 생산 차종인 Samand와 우리나라 기아의 Pride 승용차 합작생산공장 설립계약을 체결해 인근국에 대한 KD형태의 자동차 수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Iran Khodro 사는 자체 생산하는 Samand 자동차 3만 대를 2007년부터 중국에서 조립 생산하기로 합의(CKD 수출), 중국의 800cc급 자동차도 이란에서 조립 생산할 계획이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이란은 WTO 미 가입 국가이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이라크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기타 다른 나라와의 무역관련 협정 상황 파악은 불가하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이란의 총 수출입 추이

(단위: US\$ 백만)

구분	2006	2007	2008
총 수출	76,055	97,401	93,374
총 수입	50,020	56,582	67,246
무역수지	26,035	40,819	26,128

주: 2008년은 추정치

자료: EIU ('09.4월)

가. 주요 국 별 수출입

- 이란의 경우 수출입 통계가 평균 2년 정도 지나 발표되는 관계로 주요 교역국과의 최근 수출입 통계 입수에 다소 시차가 있음.
- 그러므로 EIU 분석에 따른 2007년 주요 교역 대상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주요 수입국 중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 등은 핵 협상의 미해결로 지속적인 수입액의 하락세를 보이며, 대신 중국, 한국 등 동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이란의 주요 수출 대상국

1. 중국(14.5%)
2. 일본(13.3%)
3. 터키(7.7%)
4. 이탈리아(6.6%)
5. 한국(6.2%)

□ 이란의 주요 수입 대상국

1. 중국(14.3%)
2. 독일(9.8%)
3. U.A.E.(8.4%)
4. 한국(5.9%)
5. 러시아(5.4%)

-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이란 관세청에서는 상품 및 국가별 수출입 실적에 원유를 포함하지 않아 상기 순위와 차이가 있음.

이란의 주요 국별 수출(상위 10개국)

(단위: US\$ 천)

순위	국가	연도		
		2005	2006	2007
1	UAE	1,544,618	1,728,113	2,166,019
2	Iraq	1,223,966	1,791,570	1,842,418
3	China	529,055	1,052,996	1,243,523
4	Japan	538,501	664,022	926,838
5	India	763,755	836,643	837,474
6	Turkey	204,712	326,075	565,729
7	Republic of Korea	140,857	230,646	551,950
8	Afghanistan	497,074	514,588	542,923
9	Italy	245,752	645,401	522,187
10	Germany	356,196	358,673	373,947
총 수출액		10,474,293	12,996,912	15,312,277

주 1: 상기 수출통계는 석유수출 제외 실적

주 2: 이란의 회계연도는 전년 3.21~익년 3.20일간

자료: 이란 관세청 수출입 통계, 2009년 9월 현재 최신 통계

이란의 주요 국별 수입(상위 10개국)

(단위: US\$ 천)

순위	국가	연도		
		2005	2006	2007
1	UAE	7,683,002	9,349,477	11,508,699
2	Germany	5,164,808	5,076,002	5,327,579
3	China	2,204,314	2,752,821	4,292,469
4	Switzerland	1,273,639	2,289,381	2,779,402
5	Republic of Korea	2,135,987	1,949,127	2,456,020
6	UK	983,374	1,439,611	2,002,404
7	Italy	2,361,335	1,716,937	1,902,204
8	France	2,679,745	2,192,206	1,894,191
9	India	1,114,915	1,440,215	1,457,331
10	Japan	1,310,912	917,183	1,325,115
총 수입액		39,247,582	41,722,646	48,438,819

주: 이란의 회계연도는 전년 3.21~익년 3.20일간

자료: 이란 수출입 통계, 각연호, 이란 관세청, 2009년 9월 현재 최신 통계

나. 주요 품목별 수출입

- 이란의 주 수출 품목은 석유이나, 이란 정부는 수출 통계 발표 시 원유 수출을 제외하고 발표

수출(상위 10개 품목)

(단위: US\$ 천)

순위	품목	연도		
		2005	2006	2007
1	Pistachio	816,789	1,072,659	1,263,929
2	Propane , Liquefied	318,324	670,236	971,363
3	Methanol(Methyl alcohol)	232,127	186,893	632,724
4	Butanes, Liquefied	168,609	324,523	619,638
5	Aromatic Hydrocarbon Mixtures	305,531	236,254	572,902
6	Hand Made carpet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466,267	409,234	398,105
7	Flat/Hot Rolled Iron /Steel	280,307	520,470	353,512
8	Ethylene	41,459	75,552	319,071
9	Vehicle	5,137	67,867	308,367
10	Benzene	200,296	349,721	295,375
총 수출액		10,474,293	12,996,912	15,312,277

주: 이란의 회계연도는 전년 3.21~익년 3.20일

자료: 이란 관세 통계, 각연호, 이란 관세청, 2009년 9월 현재 최신 통계

수입(상위 10개 품목)

(단위: US\$ 천)

순위	품목	연도		
		2005	2006	2007
1	Gasoline	3,851,498	4,335,377	3,412,139
2	Ingots of Iron and non-alloy Steel, others	800,893	1,269,787	2,381,925
3	"I" Sections of Iron/Steel, hot Rolled	95,863	220,351	753,308
4	Iron/Steel bars & rods, hot-Rolled	103,689	210,721	693,073
5	Flat/Hot Rolled Iron/Steel, not in coils	681,356	525,130	572,334
6	C.K.D. for Manufacturing motor cars of a domestic manufacturer =>65% inclusive, excluding Tires	817,692	547,574	553,121
7	Crude Soya-bean Oil	409,972	394,085	548,072
8	Other light Oils and preparations	29,844	768,438	533,944
9	Flat /Hot Rolled Iron /Steel , in Coils	259,070	236,921	519,483
10	Maize seed imported by other than Government	177,731	400,872	515,417
총 수입액		39,247,582	41,722,646	48,438,819

주: 이란의 회계연도는 전년 3.21~익년 3.20일

자료: 이란 관세 통계, 각연호, 이란 관세청), 2009년 9월 현재 최신 통계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대 이란 수출입 현황

- 2008년 대 이란 수출은 07년 대비 31% 증가.
 - 2007년: 3,266백만불 (06년 대비 27.6% 증가)
 - 2008년: 4,342백만불 (07년 동기 대비 33% 증가)

- 이러한 호조세는 유럽 업체들의 대이란 거래 위축에 따른 반사이익과 함께 약 8억불에 달하는 선박 인도분에 힘입은 바 크며, 또한 4억 8천만불에 달하는 철강판 및 3억 8천만불 규모의 완성 승용차 수출이 상반기에 기반하였음.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입 현황

(단위:US\$백만)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출	2,141 (0.3%)	2,559 (19.5%)	3,266 (27.6%)	4,342 (33%)
수입	3,535 (45.2%)	5,049 (42.8%)	6,482 (28.4%)	8,223 (26.9%)
무역수지	△1,394	△2,490	△3,216	△3,880
교역규모	5,676	7,608	9,748	12,565

자료: KOTIS, 2009년 9월 현재 최신 통계

주요 품목별 대이란 수출

(단위 US \$)

순위	품목명	2007		200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265,621,429	27.6	4,342,555,102	33
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683,887	266.1	848,493,887	31,514.40
2	철강판	546,549,988	14.2	486,275,776	-11
3	자동차	364,177,889	167.7	379,269,404	4.1
4	합성수지	438,059,210	80.8	343,156,447	-21.7
5	자동차부품	290,225,728	-2.4	266,059,741	-8.3
6	냉장고	139,350,244	19.7	182,206,774	30.8
7	종이제품	152,611,815	25	177,928,620	16.6
8	철강관 및 철강선	93,925,595	66.7	105,552,885	12.4
9	철강재용기 및 체인	58,028,860	31.5	91,586,489	57.8
10	원동기 및 펌프	46,175,293	73.5	84,577,340	83.2
11	가정용회전(rotaryelectric)기기	67,544,235	2.5	77,357,533	14.5
12	계측제어분석기	73,365,112	0.9	77,189,662	5.2
13	영상기기	43,748,945	-13.1	64,512,081	47.5
14	철도차량 및 부품	8,859,020	11,347.10	60,437,079	582.2
15	컴퓨터	38,684,434	10.2	55,719,725	44
16	건설광산기계	42,567,906	13	54,169,084	27.3
17	정전기	25,868,998	72.8	48,285,340	86.7
18	플라스틱 제품	47,362,365	29.3	45,433,240	-4.1
19	기타석유화학제품	72,279,328	88.2	45,063,931	-37.6
20	섬유 및 화학기계	38,418,541	-2.3	44,945,310	17
21	인조섬유	47,193,911	33.8	43,488,649	-7.8
22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4,597,826	-75.4	40,951,762	180.5
2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0,686,886	103.5	37,509,683	81.3
24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97,342	-47.8	34,673,947	35,520.80

25	기계요소	40,498,377	-9.2	33,433,185	-17.4
26	동제품	34,572,676	20	31,163,399	-9.9
27	수동부품	1,378,218	39.9	29,118,929	2,012.80
28	주단조품	20,630,629	40.7	28,858,887	39.9
29	건전지 및 축전지	26,264,509	118.8	27,733,663	5.6
30	합금철선철 및 고철	387,384	-85.1	27,137,141	6,905.20
31	정밀화학원료	25,039,535	2.8	26,939,949	7.6
32	기타기계류	26,755,918	8.3	25,968,941	-2.9
33	알루미늄	33,256,029	64.7	24,401,520	-26.6
34	고무제품	16,064,229	-23.9	21,062,414	31.1
35	전자응용기기	11,687,796	91.3	18,667,601	59.7
36	편직물	8,443,060	-44.3	17,132,598	102.9
37	인조섬유장섬유사	16,660,675	18	17,041,107	2.3
38	합성고무	18,326,267	78.1	16,842,981	-8.1
39	기호식품	16,891,724	-51.8	15,566,370	-7.8
40	기구부품	11,520,866	18.8	14,917,991	29.5
41	난방 및 전열기기	12,121,519	-8.6	14,579,045	20.3
42	전선	14,762,721	43.1	14,223,234	-3.6
43	기타화학공업제품	10,860,484	89.9	12,851,045	18.3
44	무선통신기기	6,354,429	14.7	12,662,099	99.3
45	농약 및 의약품	16,691,709	10.5	12,282,162	-26.4
46	레일 및 철구조물	20,247,479	-31.4	11,127,567	-45
47	압연기용접기 및 주조설비	8,561,147	219	9,686,365	13.1
48	비누치약 및 화장품	8,441,985	36.1	9,583,342	13.5
49	석유제품	13,051,456	111.4	9,097,260	-30.3
50	음향기기	11,622,782	-32.8	8,837,934	-24

자료 KOTIS, 2009년 9월 현재 최신 통계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제도

- 이란 정부는 지난 90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과다한 석유의존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 정책 차원에서 관세 및 비관세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수입정책의 경우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저관세 및 수입완화 정책을 견지하는 반면 완제품과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품목, 사치성 소비재는 100%까지 고관세를 적용하여 최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 산업화 정책에 부합하는 석유화학, 농업, 광업, 자동차, 철강산업 관련 기계류의 경우 수입 허가 면제
 - 국내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원재료 및 시설재 중 일부 품목은 광공업성 사전수입 허가 면제품목으로 고시, 수입 완화

- 비관세 정책은 주로 상무성 및 광공업성 등 수입허가 관청에서 사전수입허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란의 산업화에 필수 불가결한 자본재는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을 촉진하고 있는 반면 이란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국산 제품의 품질수준과 생산물량에 관계없이 수입허가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이란정부의 수입제한 정책에 대응, 산업협력을 통한 CKD방식 수출 등 현지 투자를 통한 수출 확대 기반 조성이 필요함.
- 모든 수입품목은 승인품목(Authorized), 조건부승인품목(Conditional), 금지품목(Prohibited)으로 분류됨.
 - 자동승인품목: 없음.
 - 조건부 승인품목: 대부분의 품목이 해당되나 자동차, 화장품 등 불요불급한 완제품, 소비재의 경우 100% 내외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금지품목: 무기류, 마약, 술 등
- 그동안 이란은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품질 및 물량에 관계없이 국내 제조업체가 상업성에 신청 시 고관세 또는 수입 미승인 품목으로 분류했으나 2001년 7월부터는 대부분 품목의 수입을 승인하는 대신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2004년에 들어서는 이란 상업성 등 주요 정부기관이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수입완화 및 수입관세 인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중이기도 함. 2005년부터는 수입관세를 기존 custom duty와 commercial tax 두 항목을 통합 운영함.
- 수입절차
 - 상무성 수입신청 - 관계 부처의 사전 수입허가 - 시중은행에서 L/C 오픈 사전 예치금 납부 - L/C 개설, 수입 실시 - 수입 시 적용환율은 변동환율(미\$1=약 9,820리알, 2009년 5월 기준)
 - 정부부처 및 기관별 수입할당액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외환 예산 사정에 의거해 분배됨.

나. 수입규제사례

1) 수입규제사례/ 선적 전 검사

이란 정부는 2001년부터 선적 전 검사 제도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했으나 이란 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수입자의 신용에 따라 일정액 이상 수입 시 선적 전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L/C 개설 이전에 선적 전 검사 필요 여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선적 전 검사의 경우 수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높은 신용평가를 받고 있고 무역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영 표준연구소(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of Iran: ISIRI)가 지정한 이란 또는 ISIRI가 지정 및 허가한 검사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ISIRI 지정 검사기관은 약 22개이며 한국에 Agent를 갖고 있는 검사기관 등 자세한 업체 정보는 한국검수검정협회(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501호 (110-300) 02-737-6934: 02-722-69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적 전 검사제도는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선적 지연, 수수료 부담 등 교역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도부터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란의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이를 요

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 이란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음. 향후 우리업체의 경우 동 검사가 이란 수출 시 필수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신용장 개설 전 수입업자에게 선적 전 검사 면제를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적 전 검사기관 중 하나인 I티는 한국에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일본소재 I티로부터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손실이 크므로 사전 바이어에게 검사기관 변경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2) 수입규제사례/[이란]원산지 증명제출 및 영사확인

그간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선적서류에 대한 영사인증 의무 또한 선적 전 수입검사와 마찬가지로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결과 수입업체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업체가 주한이란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L/C 개설 이전에 수입자에게 영사인증 조항 삭제를 요구하여 영사 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입규제사례/표준규격

이란국립표준공업연구소(Iranian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 ISRI)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정하는 이란의 유일한 기관이다. 동 기관은 필요에 따라 품목별 표준 규격을 정하는데 결정된 규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필수 표준규격 적용대상 품목은 반드시 인보이스상에 관련 규격이 명시돼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 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통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근 이란은 가전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에 이란표준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CE 등 국제적인 표준규격을 취득한 제품은 이로 갈음하고 있으나, 국제표준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는 통관이 불허된다. 이 경우 다소 시간은 걸리나 수입상과 협의를 통해 이란 표준 규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4) 수입규제사례, 위생·안전허용 기준

위생, 의료 및 의약품 관련 품목은 이란 보건성의 표준규격 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 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성에 제출해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위생, 안전허용 기준 승인을 득한 품목만 수입이 허용되는데 보건성의 심사통과를 위해서는 CE, FDA 등의 국제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심사결정까지 통상 45~60일이 소요된다.

(참고- 소형 전자안마기도 보건성의 사전 수입승인 필요 품목의 하나임)

5) 수입규제사례/샘플 통관

해외에서 이란으로 발송하는 샘플 및 카탈로그 통관 시 소액, 소량인 경우라도 현지에서는 통관 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통관 소요기간도 1~2주 이상이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업체가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시 필요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있어 현지 시장개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핸드캐리 샘플 또한 공항세관에서 통관을 지연 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샘플 정식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세관원이 많아 현지인의 도움 없이는 통관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정식 통관 시 요구하는 예치금의 반환은 출국 후 6개월 이후에나 돌려 받을 수 있어 많은 업체에서 예치금 반환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타 항공특사 대비 가격이 저렴한 EMS를 활용하는 국내기업이 많은데 현지 EMS의 서비스 악화로 샘플이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EMS활용 시에는 현지 바이어에게 EMS 발송 코드 송부를 통해 Follow-up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정부조달 품목 국산화 강행

□ 정부조달 국산화 조치

- 2006. 4월 이란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하기 내역을 중심으로 한 총 58개 품목에 대해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납품 시 이란산만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
 - 컬러 TV, 냉장고 및 냉동고, 세탁기, 카세트 테이프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화기
 -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경비행기
 - 오븐, 정수기, 계산기, 가구, 주방 및 식탁 용기, 도자기 및 유리 제품
 - 혈압계, 가스 쿨러, 재봉기, UPS, 계측기기, 건축자재 등
- 동 조치는 광공업성 주도로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중심으로 2006년 1월 초안이 마련됐으며 4월 말에 국회를 통과해 발효됨.
- 이에 따라 한국산 등 외국 제품은 향후 이란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으나 58개 품목의 분류 및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시행에 혼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 대 이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 상기 58개 품목에는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 주종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치의 대상이 정부조달에 국한되어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TV 등 가전제품과 컴퓨터의 경우 정부입찰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CKD 방식의 현지 조립 비중이 높아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냉장고 등 백색가전의 경우에는 정부입찰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예를 들면 컴퓨터 모니터의 경우 한국산이 9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40%의 수입관세를 물고 CKD 상태로 들어오고 있으며 승용차 역시 현지 조립 위주로 완성차 수출 비중은 극히 미미한 상태임.
- 다만 금번 조치는 건설 플랜트 분야의 자국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으로 아흐마디네자드 신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우려케 하고 있음.
- 즉, 향후 이란 시장이 폐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란 바이어 및 제조업체들과의 산업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란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첨단 및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수입규제사례/한국산 수입 Proforma Invoice 승인 규제

이란 상무성은 2005년 10월 17일 한국산 수입 Proforma Invoice에 대한 승인을 중단한 바 있다.

동 사태는 이란 측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진행되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제재한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후 11월 5일부터 수입 승인이 재개되었으나 자동차 부품 등 자국 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류에만 국한됐으며 동 조치의 완전한 해제로 볼 수 있는 가전 완제품이 제외됐다.

하지만 11월 24일 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의 UN 안보리 회부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않음으로써 이란의 한국산 금수와 관련한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후 동 조치는 2006. 1월을 기점으로 완전 해제됐다.

나. 그 외 한국산에 대해 차별적으로 수입이 규제되는 경우는 없었음.

5. 관세제도

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세는 H.S 분류방식을 채택한다. 이란은 쌍무 간 또는 회원국 간 적용되는 특혜관세율 적용을 고려 중이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9개 ECO 회원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최근 파키스탄과 특혜 관세협정을 체결, 합의된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표준관세율에서 19%씩 인하한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란 관세법은 수입품이 덤핑이나 유례 없는 호조건, 양보에 의하여 이란에 반입됨으로써 이란의 동종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과거 수입된 가격과 Proforma Invoice상에 명시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추정가격에 의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반덤핑 관세부과의 투명성이 낮다. 현재까지 이란당국이 한국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이란 관세규정에 따르면 이란의 수출품목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이란 정부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CO 회원국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율을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1개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란은 관세율 조정을 통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데, 원자재, 부품 등 자본재는 약 10% 이하의 저관세를 적용하며 시계, 가구, 자동차 등은 약 6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바이어의 탈세조장 또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덤핑 또는 비정상적으로 수입품 가격을 조정, 인하할 경우 이란 정부는 동 특정품목에 대해 관세인상 등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 환급은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관세를 우선 납부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수출 촉진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대상 품목은 상무성과 관련부서와의 협의 하에 결정된다.

최근(2008년 5월) 이란의 수입품 관세를 결정하는 Article one commission은 아래와 같이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결정했다.

□ 관세인하 주요수입품 리스트

- 핸드폰 완제품 수입관세 25%에서 10%(SKD 관세율은 10%에서 4%)
- 냉장고 수입관세 41%에서 31%
- LCD TV 수입관세 46%에서 36%
- 진공청소기 수입관세 46%에서 31%
- 기타 가전제품 수입관세 51%에서 31%

원래 자동차 수입관세율 역시 90%에서 75%로 인하하고자 하였으나,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가. 관세의 종류

이란의 관세는 CIF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과거에는 기본 관세(CUSTOM DUTY) 및 상업이윤세(COMMERCIAL BENEFIT TAX; CBT), 은행세(Banking Charge, 5%)로 구별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상업이윤세가 기본관세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나. 관세 환급: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관세 사후 환급

이란의 관세법에 의하면 수입품이 덤핑이나 유례가 없는 호조건, 양보에 의해 이란시장에 반입되어 이란의 동종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경제를 왜곡시키는 경우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방법은 과거 수입된 동일품목의 수입가격과 현재 수입품의 P/I상에 명시된 가격과 비교,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낮은 경우 추정가격에 의거해 관세를 산정, 부과한다. 또한 상계 또는 반덤핑 관세 부과와 더불어 의도적으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정상 가격에 의한 P/I발행을 요청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극소수로 이는 국영 매장 및 유통 센터에서 L/C개설 전과 주문등록 전 가격을 엄밀하게 체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현재 이란에는 이란 관세청 홈페이지 내에 관세율을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으나 2003년 이후 수정을 하지 않아 현재의 관세율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테헤란 KBC 홈페이지 Q&A를 통해 HSCODE와 함께 문의하면 관세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선적 전 검사

이란 정부는 2001년부터 선적 전 검사 제도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했으나 이란 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수입자의 신용에 따라 일정액 이상 수입 시 선적 전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L/C 개설 이전에 선적 전 검사 필요 여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수입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높은 신용평가를 받고 있고 무역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영 표준연구소 ISIRI(Institute of Standard & Industrial Research of Iran)가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ISIRI 지정 검사기관은 총 22개이며 한국에 Agent를 갖고 있는 검사기관 등 자세한 업체 정보는 한국검수검정협회(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501호 (110-300) 02-737-6934: 02-722-69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 검사가 이란 수출 시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신용장 개설 전 수입업자에게 검사 면제를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선적 전 검사 기관의 하나인 티는 한국에 사무소가 없어 일본 소재 I티로부터 검사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손실이 큰 바, 바이어에게 검사기관 변경을 사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나. 선적서류 영사인증

중전 대 이란 수출 시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선적서류에 대한 영사인증 의무 또한 선적 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수입업자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주한 이란 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L/C 개설 이전에 수입업자에게 영사인증 조항 삭제를 요구하여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이란 관세청은 언더 밸류 수입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2007년 초 전 세계 이란 공관으로 3월 21일 노르주를 기해 이란항 수출선적서류에 반드시 영사인증을 받도록 통보한 일이 있으나 내부 반발에 따른 찬반 양론에 부딪쳐 유야무야 된 일이 있다.

다. 표준규격

이란 국립 표준공업연구소(Iranian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 ISRI, 홈페이지: www.isiri.com)가 정하는 필수 표준규격 적용 대상 품목의 경우 반드시 인보이스상에 관련 규격이 명시돼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통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근 이란은 가전제품 및 자동차부품 등에 이란 표준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CE 등 국제적인 표준규격을 취득한 제품은 이로 같음하고 있으나 국제표준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이 경우 다소 시간은 걸리나 수입상과 협의를 통해 이란 표준규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

라. 위생안전 허용 기준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이란 보건성의 표준규격 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 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성에 제출해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위생, 안전 허용 기준 승인을 득한 품목만 수입이 허용되는데 보건성의 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CE, FDA 등의 국제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심사결정까지 통상 45~60일이 소요된다.

(참고- 소형 전자안마기도 보건성의 사전 수입승인 필요 품목의 하나임)

7. 지적재산권

가. 저작권 및 상표법

저작권법 및 상표법이 있으나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대량 불법 복사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므로 위조가 손쉬운 아이디어 상품 등은 현지 시장 진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A사의 "공기 청정기"와 C사의 "식품포장랩"을 현지 업체가 불법 복제한 사례가 발생했으나 우리나라 업체가 상표를 미등록하고, 현지 관련 법규가 미비해 별다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이란 정부는 자국 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으나 대부분 사용 소프트웨어들이 수입산으로 아직까지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소비자보호제도

이란의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은 현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 소매점포에 가격표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특정 점포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표준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소비자의 클레임 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구입한 물건이 이란 표준연구소가 정한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소비자가 동 위원회를 통해 구입 물품에 대한 클레임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상기한 바와 같으나 현지 시장이 아직까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 의한 클레임 제기 사례는 거의 없고, 클레임 제기 시에도 처리 절차가 불투명하고 장기간 소요되며, 실제로 해결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8. 통관/운송

가. 국제공항

- 현재 테헤란 내 국제공항은 노선에 따라 이맘호메이니 공항(테헤란 남쪽으로 30km)과 시내 메흐르압바드 공항을 동시에 사용 중이며, 점차적으로 이맘호메이니 공항 사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임. 그 외에도 각 주의 주요 도시인 쉬라즈, 이스파한 등에 국제 공항이 있음.
- 국내선은 Iran air 와 Asseman, Saha 등 6개 항공사가 취항 중임.
- 국제선은 현지 항공사인 Iran Air가 매주 30편을 운항 중이며 이스탄불, Zurich, Frankfurt, Athenes, Kuala Lumpure, Rome, Paris, Karach, Beijing, Tokyo, Dubai, Amsterdam,

Moscow, Cyprus 등지로 취항하고 있으며, 외국 항공사는 Aeroflot, Air France, Air India, Alitalia, Emirates Air, Gulf Air, KLM, Lufthansa, PIA, Swiss Air, Syrian Air, Turkish Airways 등이 있음.

나. 국제항구

- 이란 북부 카스피해 해안이 630Km이며 남부해안이 1,880 km에 달함.
- 북부 항구는 카스피해에 인접한 Bandar Anzail와 Noshahr, 남부에는 이란 최대의 항구인 Bandar Abbas(우리나라 부산에 해당), 그리고 자유무역지대인 Kish, Qeshm, Chabahar 등이 있음.

다. 운송 비용

- 20ft 컨테이너의 주요 루트인 부산-Bandar Abbas 간 해상 운임의 경우 2008년 기준 1,400\$ 정도이나 항구에서 수도인 테헤란까지(약 1,200km)의 내륙운송 비용도 2,000\$ 정도로 해상운임만큼 비싼 편임.
- 부산에서 Bandar Abbas까지 배로 소요되는 기간은 약 30일 내외로 배편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항공운송은 운송기간이 짧은 대신 가격이 매우 비싸며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음.

라. 주요 운송회사

- 이란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운송회사는 Uni Pack과 Simorgh Pack이며, 통관서비스도 일부 겸하고 있음.
- Uni Pack
 - 전화: 98-21-4490-3535
 - 팩스: 98-21-4490-1480
 - e-메일: info@unipackmover-iran.com
- Simorgh Pack
 - 전화: 98-21-8830-4145
 - 팩스: 98-21-8884-8844
 - e-메일: info@simorghpack.com

마. 통관 시 구비서류

- Proforma Invoice(P/i)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Bill of Lading(B/L)
- Insurance Certificate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지로서의 장·단점

1) 투자지로서의 장점

□ 풍부한 천연자원과 무한한 잠재성

- 이란은 중동국가 중 석유, 천연 가스를 비롯 금속, 비금속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한반도의 8 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와 함께 인구도 7,000 만 명에 가까운 중동의 강국임.
 - 원유 매장량 세계 3 위, 생산량 세계 4 위이며, 천연가스는 매장량 세계 2 위, 생산량 세계 2 위
- 인근 중동국들 중 비교적 교육열이 높으며, 문맹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2005 년 기준, 문맹률 15.1%

□ 인근 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형학적 이점

- 이란은 남부의 해안을 이용한 물류의 출입이 용이하며 서, 북, 동으로 접경하고 있는 이라크,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7 개국과 접근이 매우 용이함.
- 특히 이라크의 최장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란은 이라크의 시아파 정권 집권 후 긴밀한 정치, 경제적 교류를 나누고 있는 실정임

2) 투자지로서의 단점

□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 그러나 실제적 지원은 미비

- 이란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자본과 기술의 습득뿐 아니라 매년 80 만 명에 달하는 신규 노동인력에게 제공할 고용기회 창출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 시스템의 미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감면 및 과실송금 보장 등의 모호성 그리고 경직적인 노동법규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나. 투자 유치 제도

1)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 자유무역지대

- 이란의 산업단지는 현재 6 개의 자유산업지대(Free Industrial Zone)와 15 개의 특별 경제 구역(Special economic zone)으로 구분되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14 개 부처 장관 및

이란 중앙은행 총재를 임원으로 구성된 자유무역 산업지대 고등위원회(High Council of Free Trade- Industrial Zone)에서 감독 및 지휘함.

- 자유무역산업지대 고등위원회(High Council of Free Trade- Industrial Zone) 내에는 각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개별 조직이 있음.
- 각 조직은 독립 법인(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가 일반 기업에게 부과하는 법규 및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조직의 장은 동 고등위원회 회원의 제청에 의거해 이사회 회원 중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Chairman 또는 Managing Director 라고 불림.

○ 이란의 특별 경제구역 조성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이란의 제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촉진
- 선진 외국기업의 진출을 통한 기술 도입 및 현지 노동력의 숙련도 향상
- 저 개발, 비도시 지역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 자유무역지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수입 원재료 및 시설재에 대한 관세 면제
- 투자 외국 기업에 대해 15 년간 내국세 면제 (현재 30 년으로 연장할 계획이 있음)
- 투자 지분 100% 소유 보장
- FTZ 에서 이란 본토로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 면제(국내생산 부가가치 비율 한도 내에서 60% 이상일 경우)
- 자본 및 임금에 대한 송금 보장
- 100 년간 장기 부지 임대 허용
- 노동법 적용 완화
- 무비자 출입국 허용 등 각종 편의 제공
- 외국은행 설립 허용

2) 조세 감면 정책

-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경우 15 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현재 30 년으로 연장할 계획이 있음)
- 석유화학 특별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5 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 기타 이란 본토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는 도입 예정임.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국가/지역별 대 이란 투자 현황(1993~2009.3)

(단위: US\$ 천)

지역/국가	투자건수	투자 승인액
EUROPE	265	11,056,136
Germany	72	3,015,899
Austria	6	19,303
Spain	7	1,707,238

지역/국가	투자건수	투자 승인액
Slovenia	7	5,118
UK	8	280,589
Italy	22	758,770
Belgium	6	437,075
Bosnia Herzegovina	1	900
Turkey	51	956,286
Denmark	3	5,903
Romania	1	1,470
Sweden	4	18,941
Swiss	10	144,045
France	34	549,190
Cyprus	2	61,095
Luxembourg	4	67,875
Holland	13	1,696,333
Greece	1	520
South Ireland	2	34,800
Virgin Islands (UK)	8	735,036
Cayman Islands	3	559,750
AMERICA	7	1,040,344
Jamaica	1	280
Canada	4	1,006,235
Panama	1	21,500
USA	1	12,329
ASIA	206	11,687,963
Armenia	1	19,000
Afghanistan	76	57,848
UAE	29	8,715,210
Bahrain	4	200,886
Taiwan	2	3,846
Azerbaijan	4	10,393
Iranian Residing overseas	10	144,420
China	7	14,586
Japan	2	962
Singapore	3	837,928
Saudi Arabia	5	252,148
South Korea	7	201,917
Kuwait	8	109,820
Malaysia	5	94,780

지역/국가	투자건수	투자 승인액
India	27	91,527
Pakistan	3	2,734
Lebanon	2	72,750
Jordan	2	21,220
Iraq	3	1,348
Georgia	2	7,996
Indonesia	1	354,000
Oman	1	317,000
Nepal	1	300
Kyrgyzstan	1	155,344
AFRICA	9	7,988,869
Liberia	1	6,000
Mauritius	6	7,978,784
South Africa	2	4,085
INTERNATIONAL	3	25,900
International	3	25,900
TRANSNATIONAL	22	1,699,267
France-Ireland	1	1,500
Canada-Barbados Island	1	16,800
Singapore-Virgin Islands	2	62,123
Sweden-Germany-UK	1	236,580
Germany- Iranian Residing overseas	2	3,720
Turkey- Iranian Residing overseas	1	198
India-Pakistan	2	11,500
Ireland-Turkey	1	6,000
Germany - Spain	1	4,636
UAE-Swiss	1	116,290
UAE-Saudi Arabia	1	2,000
UK-UAE	1	1,230,000
Kuwait- Iranian Residing overseas	2	3,594
Afghanistan-Pakistan	1	500
Afghanistan-Russia	2	1,960
UK-Germany	1	496
India-Afghanistan	1	1,370
OCEANIC	1	682,000
Australia	1	682,000
합계	513	34,180,478

자료: 이란 투자청('09.3월)

업종별 대 이란 투자 현황(1993~2009.3)

(단위: US\$ 천)

분야	업종	건수	투자 승인액
Agriculture	Farming	6	19,548
	Livestock	3	1,496
	Sub total	9	21,044
Mining	Other Mines(Exploration, Exploitation and Processing)	12	2,248,612
	Crude oil and Natural Gas(Exploitation , Exploration and transfer)	1	202,000
	Sub total	13	2,450,612
Industry	Food , Drink & Tobacco	59	596,017
	Textile & Leather	44	88,309
	Chemicals, Oil derivatives , Rubber & Plastic	93	10,341,526
	Cellulosic (paper & Wood), Print & Publishing	14	106,178
	Non-metallic minerals	11	159,217
	Basic metals	27	8,160,188
	Machinery, Equipment & Fabricated metal products	48	176,917
	Electric & electronic – Home appliances	21	29,868
	Transport Equipment and automotive	30	844,484
	Recycling	2	874
	Medical , Optical and precision instruments	1	560
	Others	1	403
	Sub total	351	20,504,542
Water , Electricity & Gas supply	Generation, transfer and distribution of electricity	4	1,165,404
	Refinement and distribution of natural gas	4	3,606,430
	Sub total	8	4,771,834
Construction	Construction Materials	45	334,649
	Building and housing	12	571,389
	Sub total	57	906,038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Post & Telecommunication	4	1,694,820
	Supporting services	9	92,539
	Road transport	2	1,850
	sea transport	1	37,750
	Sub total	16	1,826,959
Service	Design & Engineering , Financial , etc	16	63,637
	Tourism	10	2,417,545
	Financial services	23	854,598
	Public affairs	6	357,300
	Sub total	55	3,693,080
Others		4	6,370
	Sub total	4	6,370
합계		513	34,180,478

자료: 이란 투자청('09.3월)

연도별 대 이란 투자 현황(1993~2009.3)

(단위: US\$ 천)

연도	투자건수	투자 승인액
1993	2	20,320
1994	3	187,653
1995	7	122,738
1996	13	67,004
1997	19	174,839
1998	6	5,840
1999	18	1,049,296
2000	16	438,669
2001	7	67,991
2002	27	612,705
2003	40	1,357,626
2004	31	2,702,738
2005	56	4,234,474
2006	78	10,227,722
2007	104	12,089,192
2008	86	821,671
합계	513	34,180,478

자료: 이란 투자청('09.3월)

□ 아시아 지역 투자승인액 1위, 대부분이 인근국 위주

- 대 이란투자액 중 아시아지역 국가투자가 전체의 약 40%을 차지, 국가별로 인근 아프리카니스탄, UAE, 인도 순건
- 이는 UAE 에 진출해 있는 이란인 소유 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동 아시아국 중 중국은 7건, 일본은 2건, 한국은 7건 대 이란 투자

□ 유럽국가 투자 건수 1위, 투자 승인금액 2위

- 전통적으로 이란과 밀접한 교역 관계에 있는 유럽의 대 이란투자가 단연 활발
 - 건수 기준 51% 이상, 투자 승인금액은 32% 상당
- 유럽국 중 독일의 투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72건, 약 30억 달러 상당 투자승인
 - 그 외 터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투자도 상당액
- 투자 분야는 자원개발, 석유화학, 제조업 분야에 집중

□ 2002년 외국인 투자법 개정 이후 급격히 증가

2002년 47년 만에 외국인 투자법 개정(FIPPA) 이후 외국인 투자 금액 및 투자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2001년까지의 외국인투자 91건, 미화 21억 달러 그러나, 2002~2009년 3월 기준 외국 인 투자 513건, 미화 342억 달러승인)

□ 주요 외국 투자 기업 리스트

이란 투자청은 외국투자기업리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KBC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유럽의 투자는 석유, 가스 분야에 집중해 있으며, 대표적인 제조업 분야 투자 회사로는 프랑스의 Peugeot, Citroen(자동차 생산설비), 사우디의 Aljun(오렌지 주스 생산), 스위스 Nestle 등이 있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 이란 투자청에 따르면 한국의 대 이란 투자건수는 7건으로, 총 투자 승인액은 미화 201,917 천달러, 실제 투자액은 20,123 천달러 임.
- 그러나 미화 18만4,600천 달러를 투자한 (주) 대우의 경우 2004년 이란에서 철수하면서 투자 금액을 회수하였으며, 실제 1개 투자 건인 KT&G 투자건을 2건으로 잡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건수는 5건임.
- 최근 2008년에는 담배제조사인 KT&G 가 6,398천 달러를 설비·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년 약 10억 개피의 담배를 생산할 예정이나, 실제 생산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 자동차 CNG 실린더를 생산하고 있는 NK(주)는 2004년 이란의 Kavosh Pressurized Vessels Mfg. Co.(SANKA)에 미화 400천 달러규모의 현금투자 및 기술이전을 하였으나, 매년 적자 상태, 향후 상황 호전이 기대됨.
- 투자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이란의 외국인 투자법이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실 송금(재무성 장관 승인 사항)과 수출 목적의 100% 단독 투자 시 사안별 심사, 서비스 법인에 대한 승인 불허 등 국제 수준에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임.
- 최근 이란 업체들의 경우 수출 업체인 한국 기업에 합작투자를 건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란 업체가 투자를 건의하는 경우는 크게 아래의 두 가지가 대부분임.
 - 이란 업체 공장 부지 제공, 한국업체 기계 및 know-how 제공
 - 이란 업체와 한국 업체 공동 지분 투자하여 합작회사 설립
- 향후 이란 정부의 성의 있는 투자법 개정 및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이 우리 기업의 이란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관건임.

한국 기업의 대 이란 투자 동향 (2009.3월 기준)

(단위: US\$ 천)

No.	프로젝트명	합작업체	투자업체	지분	투자 승인액	실제 투자액	승인 년도
7	Production line of Plastic and metal Pipe and fitting		MP Corporation & Keumah Schmitter	46	500		2008
6	Cigarette production		KT & G	100	5,339	6,398	2008
5	Investment increase in Cigarette production		KT & G	0	8,932		2008
4	Processing and Packing of acorn	Persian Kia Asia	문충근	90	240	260	2007
3	CNG Gas storage Tank	Sanka Co.	N.K.	40	400	400	2004
2	Raw material production for Agriculture	Poya Polymer Tehran	CISCO Ltd.	25	1,906	552	2000
1	Production of Passenger car	Kerman Motors	Daewoo	49	184,600	12,513	1994
합계					201,917	20,123	

자료: 이란 투자청(09.3)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 투자의 법적 기준 마련

1) 외국인 투자보장법(FIPPA) 개정 및 유권 해석

-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2002년 5월 기존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보호법(1955. 11월 제정)을 47년 만에 개정해 외국인 투자 분야 및 지분 한도를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적극 추진
- 이란 헌법 81 조에 '무역, 산업, 농업, 광업, 서비스업 분야는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한다'고 명시해 원천적으로 외국인의 주요 산업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수호위원회는 '주재국과 법적 계약을 체결한 이란 주재 외국 투자 회사는 헌법 81 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면서 특정 자원 개발을 제외한 일반 산업 투자 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을 인정했음.

2) 관련 법규 주요 내용

- 외국인의 투자 주체: 자연인 및 법인(외국 정부기관의 투자 불가)
- 외국인의 투자 가능 분야: 공업, 광업, 농업, 운송 등 서비스업
- 외국 투자 자본의 대상: 외국 화폐, 기계류·부품·원자재·운송장비·특허권 등 자본재와 지적 소유권 최초 투자 자본의 대 이란 반입은 총 투자액의 최소 10%를 6개월 이내에 완료(투자 보증 성격)

3) 현실적인 법적 보장 필요

- 그러나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 국내의 경우 외국인 투자는 100%까지 허용하나 사안별로 해당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제로 100% 외국인 투자 사례는 전무함.
- 이란의 외국인 투자는 현지의 까다로운 행정 규제 및 인프라 미 구축 등으로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며 현재 이란 정부는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와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및 시행령을 준비 중임. 2006.9.17 이란 경제부 차관 및 OIETAI(Organization for Investment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of Iran)장은 이란 일간지를 통해 은행, 보험업을 포함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법의 추가 개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재차 확인함.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진출 여건

1979년 회교혁명 발발 이후 1997. 8월 처음으로 외국 기업의 등록을 허가하는 법안이 발효되어 이란에 주재원 사무소나 지정 설치 관련 법률적인 제한이 없어졌지만 실제 허가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동 법안은 합법적으로 이란 내에 외국기업의 법인 등록 및 지사 설치가 가능하고 이는 상호 호혜적인 입장 즉, 이란 기업의 합법적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업에 한해 적용되며 이란 법규 및 정부에 의해 허가되는 지역에 한하여 활동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란의 상법 및 외국인 투자 유치법을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 非 공장 진출 형태

- 합작 법인
 - 이란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하며, 비교적 설립이 쉬움. 현재 삼성 전자, 삼성 물산, 대우 인터내셔널, 대우 일렉트로닉스, LG 상사, GS 건설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나 아직은 모두 연락 사무소 형태임.
- 연락사무소
 - 한국 업체명으로 설립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에만 허가를 내 줌.
- 미 등록 사무소
 - 현지 체류 경험이 많은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사무실만 임차 수출입 업무를 함.
- 합작 법인 및 연락 사무소 설립이 가능한 경우
 - 이란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A/S 제공을 위한 경우
 - 이란 업체와 어떠한 형태의 사업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인 및 연락 사무소 설치가 필요한 경우
 - 대 이란 투자를 위해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
 - 이란의 비 석유분야 제품 생산 증대를 위한 기술 이전을 위한 경우
 - 교통, 보험, 상품 인스펙션, 은행 등 이란 정부의 면허를 받은 경우

1) 등록 절차

이란에서의 외국인 회사등록은 합작법인 및 연락사무소로만 구분되며, 기본적인 등록절차는 같음.

- 정식 등록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하여 사무실 및 주거지와 고용원(외국인 1인당 현지인 3명 고용을 의무화)을 확보
- 지점의 설립 등기는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 서류가 많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비 서류는 위임장, 활동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회사정관, 임명장(창설요원), 재직증명서, 연간 활동성과표, 지점 자금조달 계획서, 현지 고용원 조달계획서 등이며 동 서류를 영문 작성하여 한국 외무부 영사과 인증 후 주한 이란 대사관 확인을 얻어야 함.
- 현지 등록 시에는 이를 현지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얻어야 함.
- 등기소 등록 시 설립 목적에 맞는 신청서를 구입(가격은 1만 리알 정도)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등록 승인이 나면 자본금에 따라 회사 등록비를 지불해야 함. (자본금은 100만 Rial 이상, 등록비는 20만~52.8만 Rial)

2) 참고 사항

- 상기 지점 설립이 되면 취업 및 체류 비자를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지점 등록하는 데 3~5개월 가량의 시일이 소요되어 단기비자의 연장 등이 필요함.
- 상기와 같은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란 내에서 지점을 열기는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결과적으로 설치 허가를 잘 내주지 않고 있어 최근까지 지점이 설치된 중소기업체는 없는 상황임.

다. 공장 진출 형태

1) 개황

-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에 의해 공장이 설립된 사례는 없음.
- 이는 이란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분율 한도를 철폐하였음에도 (2002. 6월) 불구하고, 사안별로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 3국으로의 수출이 목적인 투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현재로서는 외국인 투자 공장의 자유무역지대 입주가 가능한 상황임.

2) 공장 설립 시 참고사항

- 부지 임차 비용은 제조업용 1000 평, 키쉬 자유무역지대를 기준으로 약 1 만 1,000 달러 수준임.
- 외국인 업체 세제혜택은 자유무역지대를 기준으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를 15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음. 법인 은행대출 금리는 연 7.5~9.25% 수준임.
- 본토는 물론, 자유무역지대 또한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장기 임차를 통해 공장 설립을 추진해야 함.

3) 공장 설립 절차

- 공장 설립 절차는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크게 3 가지로 나누면 아래와 같음.
 - 자유무역지대
 - 경제특구
 - 일반 지역
- 상기의 3 개 지역은 지역마다 설립 절차, 준비 서류 등이 각각 다르며, 소요 비용도 차이가 있음.
- 대표적인 자유무역지대 Chabahar 지대의 공장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음.
 - 공장 설립 요청 공문
 - 공장 설립 관련 Proposal
 - chabahar 정부 검토
 - chabahar 정부 승인 공문
 - 업체 등록 및 상호 등록
 - 부지 선택을 위한 chabahar 방문 실사
 - chabahar 정부와 공장 설립 계약
 - 영업허가서 취득
 - 공장설립

4) 공장 설립에 따른 소요 비용

- 업체 등록비: 950 \$
- 상호 등록비: 140 \$
- 연간 라이선스 사용비: 최저 360 \$
- 공장부지 주소 등록비(최저 12 개월 이상 등록): 월 100 \$
- 상업카드 발급비: 120\$

라. 투자방식

- 이란 외국인투자촉진보호법에(2002. 5 월 개정) 의하면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는 산업 전체의 25%, 개별분야 당 3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수출 목적의 외국인 투자는 100% 단독투자가 가능함. (단, 자유무역지대의 외국인 투자는 100% 단독투자가 허용됨)

- 합작 투자는 외국인 지분 비율을 49%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각료 회의의 승인을 받으면 100% 단독투자도 가능함.
- 특정 자원 개발을 제외한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안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실제로 100% 외국인 단독투자 사례는 전무함.
-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서비스업 진출은 금지되어 있음.

6. 투자입지여건

가. 특별 경제 구역

- 이란의 산업단지는 현재 6개의 자유산업지대(Free Industrial Zone)와 15개의 특별 경제 구역(Special economic zone)으로 구분되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14개 부처 장관 및 이란 중앙은행 총재를 임원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산업지대 고등위원회(High Council of Free Trade- Industrial Zone)에서 감독 및 지휘
 - 자유무역산업지대 고등위원회(High Council of Free Trade- Industrial Zone) 내에는 각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개별 조직이 있음.
 - 과거 하타미 정권시절 상기 조직은 서로의 의견 교환 및 조율을 위해 테헤란에 지부를 갖고 있었으나 아흐마디네자드 신 정권 출범 후 테헤란 지부 대부분을 폐쇄했음.
 - 각 조직은 독립 법인(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가 일반 기업에 부과하는 법규 및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조직의 장은 동 고등위원회 회원의 제청에 의거, 이사회 회원 중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Chairman 또는 Managing Director 라고 불림.
 - Secretariat of the High Council Of Free Trade-Industrial Zones 연락처
 - Address: No.53, Esfandiar Blvd., Africa Expressway, Tehran 19679,I.R.IRAN
 - Tel: (98-21) 2205-4960
 - Fax: (98-21) 2205-8657
 - E-Mail: info@iftiz.org.ir
 - Website: www.iftiz.org.ir
- 자유무역산업지대 고등위원회 산하 각 산업단지는 이란의 제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임.
- 동시에 선진 외국기업의 진출을 통한 기술 도입 및 현지 노동력의 숙련도 향상으로 질 좋은 노동력 배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저개발,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이란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
- 산업 단지 발전을 위한 예산을 배정, 내역은 발표하고 있지 않음.

나. 주요 특별경제구역

1) Anzali Port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길란 주
- 사업 시행 주체: Port & Shipping Organizaton of Gillan Province
- 주소: Anzali Port
- 전화: 98-181-34005/7
- 팩스: 98-181-34802

2) Anzali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길란 주
- 부지 면적: 140 헥타르
- 사업 시행 주체: Gilan Investment Development Co
- 주소: Takhvar Bldg., Hafez Ave., Rasht
- 전화: 98-131-734093
- 팩스: 98-131-31673

3) Sarakhs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코라산 주
- 부지 면적: 5,200 헥타르
- 사업 시행 주체: Astan-e Qhods Razavi
- 주소: No. 3, Chamran St., Chamran Ave., Mashhad
- 전화: 98-51-715065/6
- 팩스: 98-51-715067

4) Sirjan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케르만 주
- 사업 시행 주체: Kerman Development Organization
- 주소: No.413, Sattarkhan St., P.O.X 14547, Tehran
- 전화: 98-21-820 7043/5
- 팩스: 98-21-820 4703

5) Khuzestan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쿠제스탄 주
- 부지 면적: 2,500 헥타르
- 사업 시행 주체: Khuzestan Overall Construction Development Co
- 주소: No. 28, 17th St., Kianpars Ave., Ahwaz
- 전화: 98-611-368648
- 팩스: 98-611-368649

6) Sirjan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케르만 주
- 사업 시행 주체: Kerman Development Organization
- 주소: No.413, Sattarkhan St., P.O.Box 14547, Tehran
- 전화: 98-21-820-7043/5

7) Sarakhs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코라산주
- 부지 면적: 5,200헥타르
- 사업 시행 주체: Astan-e Qhods Razavi
- 주소: No. 3, Chamran St., Chamran Ave., Mashad, Iran
- 전화: 98-51-715065/6

7. 노무관리

가. 노동법 주요 내용

- 특별한 고용 절차는 없으며 광고 등을 통해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되나 현지 법규상 외국인 1명당 현지인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함
- 외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주재국 노동부에서 사안별로 심의 후 현지인 의무 고용인수를 결정함.
- 고용계약 시 수습 기간은 비 숙련공 및 반숙련공은 최대 1개월, 숙련공 및 전문직은 최대 3개월임.
- 무급 교육휴가는 최대 2년까지 임. (추가 2년 연장 가능)
- 피고용인의 사망, 퇴직, 사직,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 계약에 의한 작업 완료 시 계약이 종료되며 사직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반복할 수 있음.

나. 임금

- 매년 이란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고시하는데 2009/10 회계연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무려 20%가 인상되어, 이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음.
 - 정규직: 월 2,635천리알 (약 268달러)
- 현지 진출한 한국 상사 및 외국 상사 기준 직급별 임금 수준은 다음과 같음.
 - 대졸 남자사원: US\$ 700~1,000
 - 고졸 여사원: US\$ 300~500
 - 생산직 및 잡급: US\$ 300~500 수준
-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근무시간의 1.4배를 지급하며 (사무직, 일반직) 야간 작업자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자의 초과 근무 작업은 금지됨.

다. 해고 및 퇴직

-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소홀했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고용인은 서면에 의한 고지 후 고용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퇴직금으로 '1개월 분 급여 X 근무연수'를 지급해야 함.
- 그러나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 2개월 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불해야 함.
- 퇴직금은 '피고용인 사망 시 1년당 3개월 분 급여 X 근무연수'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무연수 X 1개월(최저) 또는 2개월(최대)'을 적용함.
- 그러나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에 맺은 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1개월치 급여만 지불하고 해고할 수 있음.

라. 사회보장제도

- 모든 국민은 소득이 있으면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피고용인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현지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데, 고용주가 23%를 부담하고 피고용인이 7%를 부담함.
-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자국에서 사회보장세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장제도 가입 의무가 면제됨.

이란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중국,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카자흐스탄, 레바논, 러시아, 남아공, 스위스, 마케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자료: EIU (2009.3)

- 고용주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며 단지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고용주의 의무는 충족됨.
- 의료보험 등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는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음.

마. 노동조합

- 이란은 노동법으로 하기 2개 형태의 노동 조직만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나 노동연합 같은 기구는 존재하지 않음.
 - 이슬람이념선교회(ISLAMIC SOCIETIES): 작업장에서 이슬람 경전 준수 여부 감시 및 이슬람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됨. 임의 가입 가능함.
 - 이슬람노동협의회(ISLAMIC LABOUR COUNCIL): 임금, 노동시간 및 작업장 행정 관련 문제에 대해 경영자와 협의하는 역할. 법률적으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권한은 제한되어 있음. 노무자 및 경영자 대표 가입 가능함.

-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합의에 의해 단체협약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실패해 파업 및 조업 지연 사태가 발생할 시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중재법정에서 최종 판결함.
- 이란의 경우 상기 2개 노동조직만 허용하고 있고 직장별 노조 결성이 제약되어 있는 바, 상기 2개 노동조직의 경우 법적인 영향력이 미약, 정부의 의도대로 노동자협회가 운영되고 있어 노동쟁의 및 파업 등과 같은 사태 발생은 거의 불가능함.

바. 기타

- 법규 및 관행상 신년 연휴 특별 상여금(급여의 100% 수준) 지급 및 업무상 필요에 의한 교통비 지급은 보편화되어 있으나 점심 식대 등은 고용주 자율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
- 유급휴가는 1년에 1개월(4번의 금요일 포함)이 보통이나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은 5주를 적용함. (그 중 9일은 급여로 대신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하지 순례 휴가는 평생근무 기간 중 1회, 1개월을 부여하며 경조사 휴가는 3일,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에는 6일을 적용함.

8. 조세제도

가. 개황

- 이슬람 헌법 51조에 ‘모든 조세는 법률에 의한다’는 조세 법률주의를 명문화 하고 있음.
- 조세 행정 조직은 재무성에 세제국을 두고 그 산하에 국세청을 설치하여 조세 정책 및 징수 행정을 관장함.
- 하지만 비효율적인 조세 시스템으로 인해 현지 비즈니스맨들의 조세 포탈이 관행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세 관련 업체들의 분쟁도 많은 상황임.

나. 조세의 종류

1) 법인소득세

-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과세 대상으로 외국 투자가가 출자하여 이란 내에 설립한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지점도 과세하고 있음.
- 과세 대상은 회계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율은 25%임.

2) 개인소득세

-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소득에 대해 12~54%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함.
 - 한국인의 경우 대체로 약 35% 상당 적용

- 외국인 회사의 본국 파견 직원의 경우 개인소득 신고를 따로 받지 않으며, 이란 세무서 자체에서 작성한 기준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인정과세). 이에 더불어 본국의 본사로부터 주택(Furnished 유무 구분) 및 차량(기사 유무 구분)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가산 세율을 적용함.

3) 노동세

- 이란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지사파견직원 등)에 대해 개인소득의 30%에 이르는 과도한 노동세(Labour Surcharge)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인정과세를 하고 있어 실제 외국인노동자가 받는 급여를 이란 정부에서 국가별 직급별로 일괄 책정해 부과하고 있어 문제
- 이에 이란주재 각국 대사관에서 항의함에 따라 몇 년간 유예를 하기도 했지만 이란 정부 측에서는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동 노동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아 현지 주재 상사의 경우 본사의 지원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지 개인투자사업가의 경우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4) 기타

- 계약세: 건설 및 용역 회사의 계약 체결시 계약 금액의 5.5%를 원천 징수
- 광업세: 석유 및 기타 광물 분야 종사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 55% 부과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관리 제도

- 외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란 중앙은행이 고시 및 통지하며, 외환 거래는 2개의 외환 시장, 즉 공식 외환 시장(Official Market)과 비공식 외환 시장(Free Market)으로 이루어져 있음.
- 외환 관련 규정에 의거, 이란인 및 거주 외국인의 해외 출국 시 1인당 US\$ 3,000 이내로 소지 한도가 제한되고 있음.
- 병 진료 및 유학의 경우 미화 소지 한도 US\$ 3,000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국외에서 유입된 외환은 자유로이 반출 가능함. (입국 시 신고한 경우)

나. 환율 정책

- 이란은 과거 외환 용도에 따라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 2개의 환율을 각기 적용했으나 2002년 4월부터 공식 환율을 폐지하고 시장 환율(변동 환율)로 단일화함.

- 2001년 1달러당 7,921리알에서 2008년 9,550리알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평가절하되고 있으며, 향후 1달러당 1만 리알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음.

다. 과실송금

- 한국기업의 과실송금 사례없음.
 - 이란에서 과실송금은 2002년 5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보호법(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에 의거 재무부 장관 승인 하에 가능하나 실제 한국기업의 과실송금 사례가 없어, 정확한 사실파악이 어려운 상황
 - 이에 따라 대 이란 투자가 극소수에 그침.
 - 분쟁 발생 시 해결 기관 부재
 - 상기와 같은 투자 건의 경우 분쟁 발생 시, 적절하게 조절해주고 해결해 주는 국가 기관이 부재
 - 그러나 최근 이란 정부는 제 4차 5개년 개발 계획(2005~2010)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 아국과는 한-이란 투자보호협정(2006.5월 발효)을 맺은 상태이며, 양국 투자를 촉진·보호하기 위한 한-이란 투자 위원회 설립을 검토 중에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란의 경우 분쟁 발생 시 대부분 법정에서 해결을 해야 하나 외국 업체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사전 예방 및 조치가 더욱 중요함.

라. 현지 자금조달 방법

- 본국을 통한 자금 조달
 - 한국에서 이란으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이 있음.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Mellat Bank 를 통해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약 3일 정도 소요됨.
 - 과거 이란 은행은 외환이 부족하여, 외환출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유가 상승으로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면서 외환출금상의 어려움은 없는 편
 - 또한 2006년까지는 보통 두바이 등의 인근지역 은행 경유하여 송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UN 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이란에 거주하는 자(법인 포함)의 달러화 계좌 보유 자체도 힘들어졌음.
 - 2007년 10월 미국의 대 이란금융제재 이후 한국 Mellat Bank 를 통한 달러화 송금은 불가하며, 현재는 유로화 송금은 가능
- 현지 자금조달 방법
 - 기본적으로 이란 은행은 외국인에 대해 융자(Loan)을 해주고 있지 않음.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개요

1) 중동 최대 경제성장 잠재력 보유

약 7천만의 인구, 한반도의 7.5배에 달하는 국토,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등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교육 수준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임.

이란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화 의지와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중동의 핵심 국가이자 역내 산업화를 달성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임. 실제로 인근 CIS 국가와의 교역량은 매년 증가세

2) 우리나라의 중동 최대 수출시장

이란은 우리나라의 중동 최대 수출시장으로 대이란 수출 규모는 2006년 기준 26억 달러, 2007년 32억 6천만달러를 상회, 2008년 말 43억불을 돌파하였음, 두바이를 통해 이란으로 재수출되는(대UAE 수출액의 약 40% 추정) 금액 합산 시 실질적인 중동 최대의 수출시장임.

연간 3~4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상품이 이란 경유, 중앙 아시아로 재수출되고 있음.

3) 대형 프로젝트가 준비한 시장

이란은 원유, 석유가스 유전 개발 및 이와 연계한 화학 및 건설 프로젝트가 준비한 시장으로 1997년 발주한 걸프만의 South Pars 지역 가스전 개발은 단일 프로젝트 발주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함.

이 외에도 각종 화학 플랜트, 댐, 담수 설비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있으며 향후 Assalluyeh 경제특구 개발 등 초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고 있음.

4) 밀무역이 성행하는 시장

2008년 이란 보건성은 매년 이란으로 유입되는 밀수제품 액수가 6십억불에 이른다고 발표 이는 지난 해보다 64%상당 증가한 수치로, 2002년 밀수 추정액이 1억불에 이른 것에 비하면 약 60배가 늘어난 것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렇듯 이란으로 유입되는 밀수제품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고율의 관세, 까다로운 수입 제도, 국경 감시의 허술함,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제도 때문

특히, 이란 정부는 자국제조업 육성을 위해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수입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책정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란산 제품질이 열악해 수입산에 대한 수요가 높음, 대표적인 제품 핸드폰, 의류 등

또한, 이란정부의 관료적 재래식행정시스템으로 인해 수입승인을 받기위해 여러 부처로부터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해, 기본적으로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

또한, 광활한 영토로 국경이 길게 뻗어있는 반면 국경 감시시스템이 허술한 것도 밀수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이란 내에서 밀수가 가장 성행하는 지역으로는 이란남부해안지역으로 일반적으로 두바이를 통해 이란 내 자유무역지대로 유입된 제품이 정식 통관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륙으로 들어 오고 있으며, 일부 어선을 이용한 방법도 흔히 이용되고 있음. 이 경우 주류, 전자제품, 식품 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그 다음으로 터키로부터 상당량에 제품이 밀수되고 있으며, 주로 의류, 직물, 음식물 등이 그 대상, 그 외, 보따리 장사들을 통해 핸드폰, 컴퓨터 부품, 소형 약세서리 등 들여오고 있음

나. 유통구조

이란 정부는 회교혁명 후 농작물과 공산품 등 생필품을 전국 각 지역의 협동조합을 통하여 유통시켜 왔음.

수입품은 상무부 산하 10개의 국영 구매유통센터(PDC)가 전국의 협동 조합망을 통해 유통시켜 왔는데, 1991년 9개의 PDC가 해체되어 정부 영향력이 감소된 반면 혁명 이후 세력이 위축되었던 바자르 상인(한국의 동대문 시장과 비슷)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공산품 소비재의 경우 이란 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이 밀수로 수입되고 있고, 이란의 각종 상가에는 많은 물량이 유통되고 있으며 TV, 신문, 거리 간판에 광고도 되고 있음.

이란에는 백화점 및 전문점과 같은 현대화된 유통 채널이 전무하였으나 1995년 이후 정부 주도로 테헤란 시에 Sharvand와 같은 종합물류센타가 상당수 개점되어 전통적인 바자르 상인의 유통망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 향후 바자르 상인의 유통망 위축은 예상되지는 않으나, 현대식 유통망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2008년 하반기 프랑스 까르푸가 테헤란을 중심으로 매장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이란의 새로운 유통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

다. 결제 및 마진

일반적으로 바자르 상인을 통한 유통구조의 특징은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신의 및 신뢰 관계에 의해 대금 결제 방법이 결정된다는 것임.

바자르 상인을 정점으로 한 유통구조는 복수의 피라미드형으로 형성되어 있어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대개 3개월 어음 결제였으나 최근 현지화 가치 급락으로 현금 결제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음.

물자 품귀 현상 등이 발생할 때는 결제 기간이 단축되며 공급 과잉 현상 발생시에는 결제 기한이 연장되기도 함.

정부 기관에 의한 유통의 경우 이윤 폭이 10% 내외이나 바자르를 통한 유통의 경우에는 유통 단계별로 30-40%의 마진 폭이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임.

일반 상품의 경우 도매상이 직접 소매상으로 유통시키나 전자제품의 경우 보통 중간상 1단계를 더 거침.

이란은 전형적인 SELLER'S 마켓으로 구매량과 관계없이 할인 폭은 크지 않음.

라. 소비자 특성

이란인의 1인당 GDP는 3,700 달러 수준으로 약 1% 미만의 부유층과 5% 내외의 중산층, 94%의 극빈층으로 구분됨

부유층의 경우, 해외 생활 경험이 풍부한 경우가 많아 선진국의 고가명품을 주로 사용하며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시함.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제품품질보다는 가격에 매우 민감.

마. 한국상품 인지도

이란에서 한국상품은 매우 인지도가 높음, 삼성 및 LG의 전자 제품 및 현대, 기아 등의 한국산 자동차를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란인들은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 있는 가격에 비해 우수한 품질을 갖고 있다고 여김

바. 유통채널

이란에서는 현지인 에이전트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기 힘든 상황, 이란 정부는 제품 수입 시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드넓은 이란에 퍼져있는 각 도시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지 실정을 잘 아는 현지인이 없으면 영업을 하기 힘든 상황임.

그러나, 이를 악용해 거래 전부터 독점 에이전트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정상 제품 수입을 위해 독점 에이전트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또한, 능력 없는 에이전트와 독점 계약을 할 경우, 계약기간 중 이란 수출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몇 년간 거래를 해보고 철저한 검증 후 독점 에이전트쉽을 거론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함. 따라서, 이란의 유통채널은 수출자→에이전트(또는 도매상)→소매상→소비자 순이다.

2. 물가정보

가. 테헤란(이란) 기초 통계 자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명목 1인당 GDP(USD)	2,746.48	3,151.96	3,990.02	4,731.96	4,629.03
명목 물가 상승률(%)	13.4	11.6	17.1	25.5	15.8
미화 대비 연평균 환율	8,964.0	9,170.9	9,281.2	9,428.5	9,928.2

나. 테헤란(이란) 물가 정보(1 USD = 9984 IRR / 2009년 12월3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RLS)
식품류	쌀 1kg	30,000
	계란 12개	15,000
	쇠고기 등심 1kg	200,000
	돼지고기 등심 1kg : 이슬람 금지품목	-
	우유 500ml	10,000
	식용유 1L	17,000
	생수 1L	3,000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 이슬람 금지품목	-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25,000
	햄버거	33,000
	김치찌개 1인분	180,00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9,600,000
	병원진료비 (국립병원, 몸살감기 내과초진)	20,000
	병원진료비 (민간병원, 몸살감기 내과초진)	50,00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250,000,000
	무연휘발유 1L	4,000
	자동차 등록비	100,000,000
	자동차보험료의무(2000cc신차,경력10년,대인/대물커버,1년)	2,000,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10,00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1,000
	시내버스 기본요금	1,250
	택시 기본요금	2,00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40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1,000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450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128K)	300,0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20,000,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0,000,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5,000,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30,000,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800,0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840,000
임금 / 노무	대졸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6,000,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4,000,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10,00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8
	출산휴가일수	30
	연간 국경일수	20
	주5일 근무 여부	No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50,000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의 경우 현지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부재로 출장을 통한 현지 방문을 제외한 바이어 발굴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관련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바이어 매칭을 하는 업체는 아직 없으며, 관련기관의 정보 또한 미미하다.

1) 유관기관

□ 정부 소속기관

- TPO
 - 업무: 이란 무역진흥기관으로 입법권한도 있는 상무성 소속기관
 - 홈페이지: www.tpo.ir

- Iran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 Mines
 - 업무: 이란상공회의소로 회원 가입한 업체들의 수출입 업무 지원
 - 홈페이지: www.iccim.org

□ 주요 협회 및 조합

-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Syndicate of Iran
 - 전화: 98-21-8863-675
 - 팩스: 98-21-8831-9630
- Computer Manufacturer Syndicate of Iran
 - 전화: 98-21-8842-5106
 - 팩스: 98-21-8841-5004
- Iran ISP 협회
 - 전화: 98-21-8871-4140
 - 팩스: 98-21-8855-5719
- Steel Producer 협회
 - 전화: 98-21-8897-5659
 - 팩스: 98-21-8897-5658
- Sanitary Valves 협회
 - 전화: 98-21-8884-7090
 - 팩스: 98-21-8884-9276
- Detergent, Hygienic & Cosmetic Industries 협회
 - 전화: 98-21-8896-7115
 - 팩스: 98-21-8895-8533
- Adhesive Cooperation 협회
 - 전화: 98-21-5563-8104
 - 팩스: 98-21-5563-8104(전화겸용)
- Auto Parts Manufacturers 협회
 - 전화: 98-21-8889-5321
 - 팩스: 98-21-8889-1913
- Cement Industries 협회
 - 전화: 98-21-8879-0766
 - 팩스: 98-21-8877-3808
- Measuring and Scaling 협회
 - 전화: 98-21-7753-1711
 - 팩스: 98-21-7753-1711(전화겸용)

2) 기타

- 이란에서 발간되는 업체 디렉터리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렉터리는 모가담 디렉터리와 골든키 디렉터리임.
- 상기 자료는 책자와 CD 로 발간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유료 사업은 하고 있지 않아 현지에서 구매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 이란에는 바이어 발굴용 별도 간행물은 없음.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의 경우 현지의 통신사정 및 인터넷 인프라의 부족으로 출장을 통한 현지 방문을 제외한 원격지에서의 발굴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관련 사이트가 있지만 접속 및 회원가입 문제가 복잡하여 사용이 불편한 것이 현실이며, 수록된 양도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1) 웹사이트

이란에서는 인터넷으로 업체 디렉터리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매우 드물다. 아래는 일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들이다.

- Iran Yellow Page
 - 홈페이지: www.iranyellowpages.net/en/
- Iran Hiway
 - 홈페이지: www.iranhiway.com

2) D/B

온라인 상에서 별도로 기업 DB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은 없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문화적 배경 및 기질

- 이란은 2,500년의 역사 속에서 매우 다양한 사회와 문화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아랍국들과는 다른 면이 많음.
- 유럽, 이슬람 등 다양한 문화가 융화되어 있는 이란은 그 자신이 주변의 아랍 문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함.
- 페르시아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강하게 나타내며 주변 아랍국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매우 굴욕적인 것으로 간주함.

- 이란인의 기질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호적이고 개방적이며 배짱이 두둑한 면이 있는 반면 엄격한 종교율법에 따른 제약도 많음.
- 복장, 사교, 행정, 사법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에 이슬람적 요소가 깔려 있음.
- 종교에 기초한 상황은 신이 내린 것으로 간주하고 논박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며, 종교 율법만이 유일한 법임.
- 이슬람혁명 이후 넥타이를 매는 것을 금하여 법원이나 관공서 출입 시에는 외국인의 경우도 풀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서구에서는 대화 시 눈을 마주치는 것이 상대방에 집중하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만 이란에서는 서로 다른 종족 간에는 피하는 것이 예절임.
- 이란인들은 매우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나 공적인 관계에서 지키는 예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됨.
- 약속된 초대는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초대하는 측이 무안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번은 사양하는 것이 좋으며 자기 집에서 거주하라거나 자동차를 내주는 것 등 평소 관계에 비추어 과하다 생각되는 것은 예절상 권하는 것이므로 수용하는 것은 좋지 않음.

나. 상담 시 유의사항

- 전화 및 서신으로 일반적인 정보 교류 후 비즈니스상의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직접 대면해 결정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업체 오더보다는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를 유지하는 성향이 강함.
- 상담 시에도 개인적인 인사나 일반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어 한국 사람의 시각에서는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임.
- 거래 협상이나 계약 시에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 즉, 사회, 기업, 가족 등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협상에 임할 때는 개인적인 면보다는 공동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음.
- 그러나, 제품 광고에서는 개인에의 유용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외국 상표가 부착된 물건은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 보는 것도 좋음.
- 최초 상담 시 이란 바이어들의 공통적인 요구 사항은 가격 인하이며, 이는 실제 가격의 합리성 계산에 앞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인살라" 식의 사고에 기인함.
- 이란인들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매우 좋아하며, 따라서 처음 대면할 때 작은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선물의 종류는 한국 토산품 등이 적당함.
- 보다 부드러운 상황에서 상담을 하기 위해, 식사를 같이하는 것도 좋음. 이란인들은 외국 음식보다는 현지식당(양고기, 케밥 등)을 더 좋아하므로 참고할 것.

- 이란은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상담시 종교 및 내정에 대한 비판은 삼가야 하며 외국인(여성)의 경우도 헤잡(스카프)을 쓰는 등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야 함.
- 2,500년 역사의 페르시아 후예답게 문화 및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므로 비판은 삼가는 것이 좋음.
- 이란 관공서의 경우 일 처리가 다소 늦고 처리과정이 복잡하며 공무원에 대한 뇌물성 선물은 금하므로 주의해야 하나 조그만 선물은 인간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태극부채, 열쇠고리 등 한국을 상징하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최초 상담에서 가격 인하 및 에이전트 요구 등 세부적인 사항 언급으로 거래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이는 단지 상담술에 불과함.
- 오퍼를 내더라도 10개 이상의 업체 가격을 비교하며 심지어는 P/I를 보여 주며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음.
- 또한 P/I 발행 후 연락이 없어 잊고 있었던 업체에서 1년 후에 L/C개설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처 관리가 필요함.
- 모든 것은 신에게 달려 있다는 인살라 관습 때문에 매사에 느긋해 외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거나 왕래가 잦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속 시간도 잘 지키지 않으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음.

다. 문화적 금기사항

- 남녀구별이 확실해 버스도 앞쪽 반은 남자, 나머지 반은 여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항 출입 시에도 남녀 출입문이 따로 있음.
- 이슬람 교리상 여성은 외부 남성에게 유혹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음. 남편과 부모 외에는 신체를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도 외출 시에는 반드시 스카프를 쓰고 긴 코트를 입어야 함.
- 여성의 노출이 심한 잡지나 카탈로그는 반입이 금지되며 Time지나 한국 신문 통관 시에도 노출이 심한 부분은 지우고 통관되고 있을 정도로 규제가 심함.
- 현지 출장시 돼지고기 및 술의 반입은 절대 불가하므로 주의가 요망되며, 내국인의 경우에는 음주 적발 시 벌금형 또는 태형에 처해지고 있을 정도임.
- 팁 문화가 발달된 나라로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는 요금에 팁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00리알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

라.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1) 수입 관행

- 이란 시장은 가격, 브랜드, 안면 시장으로 정의되곤 함.

-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는 진출이 여의치 않은 점을 이용, 현지 바이어들의 경우 최초 수입 상담 시부터 가격 인하 조건을 서슴없이 내세우는 경향이 강함.
- 하나 일단 가격 인하 조건 수용시 2, 3차에 걸쳐 계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므로 최초 상담 시 가격 인하 조건을 수용하기보다는 품질 우수성 등을 내세워 합리적인 가격 형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함.
- 이란의 경우는 최초 상담 이후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단 1년 이상으로 거래 성약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고려해 이에 대응한 상담 전략 마련이 필요함.
- P/I 발급과 계약 체결 후 1년 가까이 L/C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가 더 싼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공급업자가 있으면 동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참고로, 한국 공급업체는 업체 사정상 수익도 중요하지만 대개 일정 부분의 이윤을 포기하더라도 일단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나 이란 바이어는 대부분이 자사 창고에 다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수입 상담 시 조급함을 보이지 않고 신중을 기함.

2) 이란 비즈니스맨의 거래 관행 대응 요령

- 중국에 “만만디 문화”가 있다면 이란에는 “야보시(Slow) 문화”가 있음. 최초 상담 이후 거래 성약에 이르는 평균 시간은 최소 1년 정도 잡아야 함.
- 이란 비즈니스맨들은 최초 상담 시 서슴없이 가격인하를 요구하지만 이란 바이어의 가격 인하 조건을 즉시 수용하더라도 계약 체결로 연결될 가능성은 불확실함.
- 즉, 또 다른 국내 업체에게 인화된 P/I 가격을 제시하면서 똑같은 요구를 하곤 하므로 가격 인하 요구 수용보다는 바이어가 제시한 P/I상의 제품과 자사 제품 간의 품질 차별화 등을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임.
- 국내 공급업체가 가격 인하 조건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바이어를 공략하더라도 거래 성사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현지 바이어가 수많은 공급업체를 상대해 본 후 상담 시간이 흘러 (공급업체 입장에서 바이어를 잊어먹을 만한 시점) 국내 공급업체를 접촉하는 경우, 거래 성약 가능성이 높음. (시기적으로는 1~3월간)
- 이는 이란 바이어들이 취득한 I/L (Import License)의 유효 기간이 특정거래를 제외하고는 주로 3월인 회계연도 내에 만료되기 때문임.
- 만일, 동 기간에 수 개월 전 만난 바이어가 접촉을 하여, 약간의 가격 인하 조건을 요구할 때 수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최소의 범위 내에서 수용시 바로 신용장이 개설될 가능성이 높음.

3) 특수거래(Under Value & Over Value) 조건 대응 요령

- 이란 비즈니스맨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의례 부딪히는 문제가 Under Value 및 Over Value 문제임.
- 현지 바이어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20~30%의 Over Value를 선호함.

- 이 경우는 신용장을 Over Value 금액으로 개설한 뒤, 국내 공급업체가 대금 결제 후 Over Value 분의 금액을 해당 바이어에게 되돌려 줘야 함.
- Refund는 주로 바이어의 3국 계좌 입금 또는 Cash 형태로 진행됨.
- Over Value 거래를 진행하는 국내 업체들의 일반적 대응 조건은 하기와 같음.
- Over Value 금액 송금을 위한 은행수수료의 바이어 부담
- Over Value 금액을 기준으로 한 6-10%의 국내 법인세에 대한 바이어 부담
- 국내 법인세가 25%대에 달하나, 상호 거래 파트너임을 감안, 최소한의 경비를 바이어에게 전가

4) 신용장 거래 및 신용거래 대응 요령

- 이란과의 비즈니스는 "신용장 거래"가 신뢰도가 높고 안전함.
- 과거에는 이란에서 발급되는 신용장의 대다수가 At Sight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Usance L/C의 비중이 높음. (현지 예금금리가 연 15% 수준)
-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Usance L/C라 하더라도, Bank Gurantee Usance였으나 최근에는 Buyer's Gurantee Usance L/C라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음.
- 이란과의 거래는 주로 신용장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바이어들은 첫 대면에서부터 "신용거래"를 요구하곤 함.
- 신용거래 조건으로 선수금 20% by Cash, 잔금 80%는 물품 수취일 기준으로 180일 후 by Cash를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특히, 소비재를 수입하는 Kish 등의 자유무역지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바이어들이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거래 방식을 선호함.
- 이란과의 무신용장 거래 방식도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에서 부보 가능함.
- 부보 조건은 이란업체의 신용조사를 거쳐, 선적일 기준 90일 이내의 신용거래에 한하고 있는 바,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이란 바이어의 요구조건에 대해 선수금 20% Cash, 잔금 80%는 선적일 기준으로 90일 by Cash라는 조건으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음.

5) 대 이란 수입 L/C 개설 시 유의사항

- 대 이란 수입의 경우 한국에서 L/C 또는 L/G 개설 시 이란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음.
 - 한국수출입은행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이란 Bank Mellat 서울지점

“우리은행”의 경우 이란 중앙은행의 Black List에 올라 있어 거래가 불가능하며 외환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미국계 펀드이기 때문에 이란 은행에서 받지 않음.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무역 진출 시 애로사항

□ 제품 수출 시 에이전트 선임 필수

이란 정부는 외국산 제품이 수입 시 이란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현지에서 A/S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할 에이전트를 선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제품 수입 시 각종 승인 및 등록 업무를 에이전트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란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업체의 경우 유능하고, 성실한 에이전트를 찾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현지인이 극히 부족하다.

일부 수입 업체의 경우 반드시 독점 에이전트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에이전트가 불성실한 태도로 임할 경우 시장 진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상존한다.

나.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 Labor Surcharge 문제

이란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지사파견직원 등)에 대해 개인소득의 30%에 이르는 과도한 노동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인정과세를 하고 있어 실제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급여를 이란 정부에서 국가별 직급별로 일괄 책정해 부과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이에 이란주재 각국 대사관에서 항의함에 따라 몇 년간 유예를 하기도 했지만 이란 정부 측에서는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 노동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아 현지 주재 상사의 경우 본사의 지원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지 개인투자사업가의 경우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Work Permit 문제

이란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매년 노동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매년 갱신 시점에서 노동세 및 현지직원 추가 채용 등의 문제, 대 이란 수출 기업에 대해 일정액 이상의 이란제품을 수입해 갈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각국 대사관에서는 항의 서한을 이란 외교부를 통해 이란 노동부로 전달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실무적 차원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아국 지상사에서는 노동부 공무원의 친인척 등 불필요한 인원을 고용하여 잡부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모면하고 있으나 매년 다른 핑계를 대며 노동비자 갱신을 미루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사례

□ 중소형 플랜트 진출 성공 사례

‘이란’ 하면 흔히 아국의 중소형 플랜트 수출유망 시장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란·이라크 전쟁 직후인 90년대 초반부터 아국 중소형 플랜트의 대 이란 시장진출 노력을 전개해 온 J사가 없었다면 반대의 경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국 중소형 플랜트 수출업계에서 J사는 선두주자로 꼽히곤 한다. 수출하면 종합상사를 연상하던 80년대 중반부터 J사의 K사장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아국의 중소형 플랜트 수출에 전념한 아국 중소형 플랜트 수출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J사는 90년대 초반, ‘기계’ 하면 유럽제품만 떠올리는 이란 시장에 아국산 의료용 플랜트를 들고 동분서주하면서 시장진출 기회를 엿보았으나 바이어들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다. 이란 정부가 90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자국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목적의 기계류 및 설비를 수입하는 자국민에게 미\$ 1 = 70리알의 특혜환율(시장환율 미\$ 1 = 1,300리알)을 제공함에 따라 현지 수입업자 모두 독일 및 스위스산 등의 최고급품에만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현지 시장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 정책이 자국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 판단한 J사는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지금은 지원내용과 사업성격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90년대 초 KOTRA에서 운영한 지사화 사업에 가입해 현지 시장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현지 바이어와의 관계형성 노력에 주력하게 된다.

90년대 중반부터 이란정부의 외환사정이 악화되면서 현지 바이어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과 적정수준의 품질을 보유한 제품으로 구입전략을 수정함에 따라 시장진출 기회가 엿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대만제품과의 경합으로 아국산 시장진출 기회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J사는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의 기계제품과 그럴지 못한 나라의 제품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는 마케팅 논리로 대응한 끝에 점진적인 시장 진출 성과를 얻는다.

J사의 대이란 시장 공략은 2000년 KOTRA 테헤란 KBC의 지사화 사업에 참여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J사와 KBC, 현지 에이전트 간의 삼각구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KBC가 발굴한 인콰이어리를 현지 에이전트와 공동으로 Follow-up하는 과정에서 거래 성약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2년 한-이란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KOTRA 주관으로 개최된 “2002 한국상품전시회”에 참가하면서 J사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된다. 전시회 기간 중 이란전역에서 몰려온 100여 명 이상의 바이어와 상담을 전개하는 과정에 이란의 중소형 플랜트 시장 변화를 감지하고 기존의 의료기기 위주에서 현지 시장에 “한발 앞선” 품목을 앞세운 시장 창출형 마케팅으로 전환하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J사의 주력품목은 단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란정부의 지원 정책을 면밀히 탐구하고, 바이어에게 향후 다가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중소형 플랜트”를 제시하는 시장 선도형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어의 수요보다 앞서가는 까닭에 거래 성약으로 연결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도 있으나 경쟁이 없는 상태의 무혈입성인 까닭에 높은 수익성과 시장개방 초기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혜택은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물론, 현지 시장기반을 확고히 구축한 의료기기 및 부품의 거래도 지속되고 있다.

시장 선도형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구사한 이후 거래규모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화 되고 있다. 의료기기만을 취급할 때는 미\$ 1백만 이상의 거래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금년 들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 중에는 미\$ 1,000만을 상회하는 프로젝트도 다수 있을 정도이다.

앞으로도 J사의 “아국중소형 플랜트 수출업체 선두주자”라는 위치는 지속될 것 같다. J사의 시장 선도형 마케팅은 타 아국업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의 접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나. 실패사례

□ 수입업체의 클레임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우리 업체들은 이란 시장에 대해 “중동 최대의 아국 수출국”이라고 말하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이슬람 율법에 따라 벅타이를 매지 않는 등 국제 비즈니스 못차림에 비추어 비격식적인 이란인의 외양 및 중동 바이어 특유의 느긋하며 신용을 지키지 않는 거래 태도로 인해 이란 바이어들을 다소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일단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계약 후 선적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수입업자인 이란 A 사는 유럽산 사출 기계를 이용, 간의의자, 액자 등 플라스틱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업체로서 KBC 는 시장 조사를 통해 알게 된 후, 동 시장진출을 원하는 무역업체인 B 사를 소개, 약 1 년간의 협상 끝에 약 5 십만 달러 상당의 거래 계약을 맺었다.

제품을 인도받고 설치한 바이어는 수입 한 기계 3 대 중 1 대에 결함이 있다며 한국 B 사에 연락, 기술자 파견 및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B 사는 손해 배상의 거절 및 회사 내부 사정상 기술자 파견에 시간이 걸린다며 차일피일 해결을 미뤘다.

이에 바이어는 B 사를 이란 정부에 고발, Black list 에 올려 이란 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B 사는 몇 개월 후 다른 이란 업체 C 사와 사출기 2 대를 수출하기 위한 계약에 근접했으나 B 사가 Blacklist 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C 사로부터 계약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B 사는 결국 긴급히 기술자를 이란으로 파견, 관련 기계 수리는 물론 그동안 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약 5 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한 후 Black list 에서 삭제 조치, 이로서 손해배상 비용 5 만 달러에 C 사로 수출할 수 있었던 35 만 달러를 잃는 결과를 얻었다.

한국업체 B 사의 경우, 다른 지역 바이어들과는 달리 계약 전 과정에서 많은 실랑이에 치치고, 믿을 수 없는 바이어들이라는 고정관념이 바이어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 제품 인도 후 발생한 클레임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 약 40 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됐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란 바이어에 대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국제 상거래 규칙 무지한 신용 없는 사람들로 비춰지더라도 바이어는 왕이라는 마음으로 거래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 및 한국제품에 대한 믿음 및 좋은 인식이 널리 퍼질 것이다.

특히, 중동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민 보호 정책을 취하고 있어 자국민과의 분쟁 시 외국인에 대해 불합리할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가급적 충돌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7. 이주정책 가이드

가. 생필품 조달

그간 현지 거주 외국인의 경우 생필품을 두바이 등 인접국에서 공수하였으나 최근 대부분의 생필품이 비공식 루트로 반입되고 있어 주재국 내 대형 슈퍼에서 구입 가능. 다만 브랜드가 다양하지 않고 가격이 비싼 편이다.

나. 한국식품 조달 여건

현지 주재원의 주된 걱정거리가 한국 식품 조달 문제임. 현지에는 한국 식품점이 없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 ‘아반’이라는 시장이 있으나 한국인 기호와는 상당 수준의 괴리감이 있음. 따라서 현지 주재원의 경우 통상 3개월에 1번 꼴로 두바이를 방문, 필요한 식품을 구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 완화되긴 하였으나 이란 세관 통관 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음. 현지 건설 현장 근로자용 한국식품의 경우도 10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 레저 여건

수도 테헤란 시내에 대형 축구장, 스포츠센터, 수영장, 테니스장 등 사회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임. 골프장도 1개(13홀) 있으나 관리 소홀로 잔디 상태는 좋지 않으며 1회 필드 이용료가 약 700,000 리얄(약 US\$ 71)로 현지 물가 대비 매우 비싼 편, 연간 회원권 구입가격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추세로 2008년 기준 남자는 2,100불, 여자는 2,000불 수준으로 회원권이 있으면, 필드이용료는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부킹도 필요없다.

외국인들의 경우 겨울철에는 스키장(테헤란에서 승용차로 2시간)을 애용하며, 다른 계절엔 테니스장이나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라. 주거 환경

유흥시설이 없어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하여야 하며 가족 단위의 모임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내가 비교적 큰 편임. 임차 계약 기간은 통상 1년이며 소유주의 경우 임차 시 1년 선불 또는 6개월 선불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임차 계약 해지 시 현지 관습에 따라 1개월분 임차료를 주택 소유주에 납부해야 하며 선불 납부 시 잔여 기간분에 대한 환급이 용이하지 않다. 외국인의 경우 계약 만료 후 소유주가 과도한 주택 damage charge(원상 복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소유주와 외국인 간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마. 치안 상태

엄한 종교 율법에 따라 치안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으로 주간 및 야간 외출 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테헤란에 소재한 주택 대부분은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문과 많은 열쇠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차량 내에 옷가지, 핸드폰, 가방 등을 남겨 두고 내리면 종종 차문을 부수고 차량 내의 물품을 훔쳐가기도 하므로 매우 위험하다. 참고로 최근 터키 접경 이란의 북동부 지역과 파키스탄 접경 남서부 지역의 경우 종교적, 인종적 문제로 치안이 나빠져 이란의 국경 접경 지대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의료 시설

테헤란에는 약 160개의 병원과 350개의 클리닉 센터가 있음. 이란은 병원에 따라 진료 수준차가 심한데,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명 병원은 대부분의 의사가 혁명 전 미국·유럽 유학파로 영어가 능통하며 진료수준이 매우 높다.

약국은 테헤란 곳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의약품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함. 약국 이용 시 감기약 등 통상적인 의약품을 제외하면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사. 주택

주택 또는 사무실 물색을 위해서는 주거희망 지역의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소개 받거나 현지 영자지에 광고되는 주택정보 활용이 권장됨. 주택 형태는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다양하다.

임차료 수준은 외국인의 경우 미화 지불을 전제로 월 US\$2,000~5,000 정도이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1개월치 임차료를 임차인과 임차주가 각각 50%씩 지불함. 임차 계약기간은 통상 1년이며 소유주의 경우 임차 시 1년 선불 또는 6개월 선불 조건을 요구함. 일 또는 월 단위의 단기 주택 임차도 가능하다.

2007년에 이어 2008년도에도 주택 및 사무실 임차료가 이례적으로 폭등, 2007년 대비 거래가의 약 30% 정도로 인상되고 있어, 외국인 뿐 아니라 이란 무주택 서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임차료 폭등의 원인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접어들면서 주택가격은 다소 안정화 추세에 있다.

- 높은 인플레이션
 - 이란 중앙은행 발표 2008 년 기준 공식인플레이션율은 25.5% 내외이며, 체감 인플레이션은 40% 이상으로 알려져 있음.
- 인구의 대도시 밀집으로 인한 주택 수요 급증
 - 테헤란 등 주요 도시로의 인구 밀집 및 과밀 현상으로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이란 정부의 주택건설 허가발급 재개
 - 2000 년 초 주택가격의 폭등에 대한 조치로 한 동안 제한하였던 주택건설 허가발급을 2006 년 말부터 일시 재개하면서, 주택 투자를 활성화 시킴.

- 시중 유동 자금의 주택시장 유입 확대
 - 여타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금 회수가 빠른 주택 건설 시장으로 시중 유동 자금이 몰리고 있음.
-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 국제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06 년 기준 강철 가격은 약 30%, 철강 제품 가격은 평균 70% 오름.

아. 전화신청

신규전화 신청비는 1,500,000 리알로 공급 부족으로 신청 후 통상 1달 여를 기다려야 배정 받을 수 있어 주택임차 시 기존 가설전화 라인을 승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핸드폰의 경우는 신규 가입비가 2,400,000 리알이며 신청 후 1주일 정도를 기다려야 함. 최근 Iran Cell 및 Thaliya 등 신규 핸드폰 사업자들이 급성장하면서 핸드폰 네트워크 시장의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 2~3년 전에 비해 핸드폰 가입비 및 이용료가 낮아지고 통화 품질도 개선되고 있다.

자. 비품 구입

집을 구할 때 대부분이 집기 및 비품이 갖추어져 있어 별도 구매는 필요 없음. 냉장고, 세탁기, 침대 등 필요 비품은 계약 전에 임차주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자녀 교육여건

이란의 자녀 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영국계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으나 학생수가 약 30명에 불과하며 독일인 학교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국 교민들은 대부분 테헤란 소재 한국인 초등학교 또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인터내셔널 스쿨에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다.

- 영국계 인터내셔널 스쿨
 - 6 학년까지 있으며 1~2 명의 7 학년 내지 8 학년을 운영하기도 하나 외국에서 이주해 오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7 학년 이상으로 받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음.
 - 학비는 입학금 1,000 유로에 연간 등록금 9,000 유로
 - 교사는 영국인 위주에 캐나다인, 뉴질랜드인 등
 - 학력에 따라 입학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음.
- 이란계 인터내셔널 스쿨(이란인 운영)
 - 12 학년까지 운영, 학년당 20 명 정도 규모로 학비는 연간 3,200 불 수준
 - 교사는 이란인으로 코란(이슬람 성경)을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하며, 교육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평이나 시험은 자주 봄.
 -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란 부유층 자녀들로 구성

따라서, 중등 및 고등학생의 경우 및 영국계 및 이란계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내거나, 말레이시아, 인도, 영국, 남아공 등 제 3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카. 노동 허가(Work Permit)

이란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매년 노동비자를 갱신해야는 데, 이란 노동부는 매년 갱신 시점에서 노동세 및 현지직원 추가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 이란수출 기업에 대해 일정액 이상의 이란제품을 수입해 갈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각국 대사관에서는 항의 서한을 이란외교부를 통해 이란 노동부로 전달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실무적 차원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아국 지상사에서는 노동부 공무원의 친인척 등 불필요한 인원을 고용 하여 잡부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모면하고 있으나, 매년 다른 핑계를 대며 노동비자 갱신을 미루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타. 자동차 구입

이란의 가솔린 가격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자동차 유지비는 낮으나, 최초 구매 비용은 매우 높은 편(한국산 NF SONATA의 경우 현지 구매가격은 미화 약 44,000 달러 선)이다.

그 외 자동차 구입 후 등록 및 번호판을 수령하는 데 약 한 달 소요

주요 자동차 구입가 및 보험료

브랜드	사양	자동차 가격 (리알)	보험료 (리알)
Hyundai Sonata	2400 cc(오토)	430,000,000	14,000,000
Hyundai Avante	2000cc(오토)	255,000,000	9,500,000
Peugeot	1400cc(수동)	144,000,000	5,700,000
Pride	1300cc(수동)	87,500,000	3,500,000

파. 은행 계좌 개설

외국인이 현지 은행 계좌(현지화, 외화)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① 여권 사본, ② 노동허가서, ③ 사진 2장을 구비하여 해당 은행을 찾아가서 신청하면 됨. 소요기간은 약 1주일. 계좌 개설 시 현지화 계좌는 1십만 리알(약 US\$ 112), 달러화의 경우 2000불, 유로화의 경우 2000유로가 입금되어야 함.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개황

- 대체로 4계절이 구분되는 대륙성 기후이나 남부 지방은 아열대성 기후, 북부 카스피해 지역은 고온 다습하며 우리나라 기후와 흡사하다.

- 한반도의 7.5배에 달하는 방대한 국토를 보유한 탓에 지역별로 일교차가 50도에 달할 정도로 기온차가 심하다.

2) 테헤란 지역의 기후

- 수도 테헤란은 해발 평균 약 1,500m 에 위치하고 있는데, 연간 강수량 255mm 정도로 건조하며 4계가 뚜렷하고 겨울에는 폭설이 잦은 편이다.
- 테헤란 기후는 계절별로 서울과 흡사하나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서울보다는 기온이 높으며 하계의 경우 기온은 높으나 건조해 직사광선만 피하면 서울보다 견디기가 용이하다.
- 가장 더운 달은 7월로 평균기온 22~37도, 가장 추운 달은 1월로 영하 3~7도
- 가장 건조한 달도 7월이며 평균강수량 3mm, 가장 습한 달 역시 평균 강수량 46mm의 1월이다.
- 참고로 테헤란의 겨울은 우기로 많은 눈이 내리며, 이때 내린 눈을 저장,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 이란과 우리나라 사이의 시차는 5시간30분으로 서울 아침 09:00은 테헤란 새벽 03:30
- 2009년은 작년과 같이 서머타임을 3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4시간 30분이다.

2) 근무 시간

- 일반 직장의 평일 근무시간은 08:30-16:30이 일반적임. (KOTRA 포함)
- 목요일에는 대체로 오전 근무만 하나 최근에는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민간 업체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관공서의 경우 대부분 목요일 오전까지 근무한다.
- 은행 근무시간은 토-수요일 09:00-16:30 이나 실제 업무는 15:00에 종료한다.
- 일반 상점들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오전 09:00~12:00 및 오후 16:00~21:00이다.

다. 주요 단위

거리	미터법
전기규격	220V 50Hz
무게	G, KG
회계연도	3월 21일 ~ 익년 3월 20일

라. 출입국/비자

1) 입국/비자

이란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비자가 필요하다. 단,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인은 사증 면제 각서 교환으로 비자가 면제되며 3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하다. 관광 및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 1개월 체류 비자가 발급되고 있으며, 입국 후 1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 현지 바이어가 이란 외무성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송부한 초청장 첨부 의무화된다.

최근부터는 Imam Khomeini Airport에서 72시간 도착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발급해 주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 유의사항
 -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의 이란 입국비자 발급은 3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
 - 여권에 이스라엘 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으면 이란 입국을 허용하지 않음. (이스라엘 입국 시 별지에 스탬프를 받는 방법이 있음)

□ 비자 발급처

- 주한 이란대사관
 -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126
 - 전화: (02)723-7751/3
 - 팩스: (02)792-7052/3
 - 공휴일: 토, 일 및 이란 국경일

□ 구비 서류

- TOURIST VISA 대사관 소정 신청서 2부, 증명사진 3명
- ENTRY VISA(상용 비자)
 - 대사관 소정 신청서 2부-상공회의소 회원업체 증명서
 - 이란 바이어 발급 초청장(영문 및 페르시아어 각 1부, 이란 외무부 고시양식에 의거 작성)항공권 출장 증명서(출장업체 발행)- 증명 사진 3매
 - 여성의 경우 증명사진은 머리에 스카프를 착용하여 머리카락을 완전히 가리고 촬영 해야 함.
- 이란 입국 시 미\$10,000 이상을 소지한 경우, 입국 시 공항에서 보유외환을 신고해야 함. 향후 출국 시 외화자금 반출을 위해서는 입국 시 신고한 자료가 필요
- 취업 또는 파견근무의 경우는 Work Permit 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함. 여성의 경우 공항 도착 시부터 출국 시까지 Long Coat 및 Scarf 를 반드시 착용해야 함. 이슬람 국가인 관계로 술, 돼지고기, 음란비디오 및 잡지 등은 반입 불허. 또한, 골동품은 반출이 불허되나, 카펫은 1인당 1장(2m*3m) 씩 허용됨. (영수증 필히 지참)

□ 공항 입국 비자

- 이란공항에서 아래와 같은 Arrival Visa 발급 가능
 - 관광비자: 일주일 유효, 발급 시 100\$ 이내의 수수료 지급
 - 응급비자: 72시간 유효, 발급 시 이란업체 신청서, 사진 1매, 100\$ 이내 수수료 지급

- 상기 비자의 경우 현지 상황에 따라 발급 여부가 매우 가변적으로 가능한 주 한국 이란 대사관에서 정식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함.

□ 예방접종

- 일반적인 전염병에 대한 방역의무 사항은 없음.

□ 교통편

- 공항 입국 후 테헤란 시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가용 또는 공항 택시가 전부, 그 외 버스 및 전철은 없음.
- 택시 비용: 이맘 호메이니 공항에서 테헤란 시내까지 약 U\$ 20 선

□ 주의 사항

- 상기 내용만 잘 숙지하면, 이란 공항(이맘호메이니 공항)에서 출입국 시 특별히 주의 할 사항은 없으며, 비교적 깨끗하고 출입국 절차도 매우 간소한 편

마. 환율/환전

1) 화폐 및 환율

- 화폐 단위: Rial(공식 단위는 아니나 10 Rial 에 해당하는 Toman 도 널리 사용)
- 화폐 종류: 지폐로는 100, 200, 5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2007년 신규 발행) Rial 권이 있으며 동전은 100, 250 Rial 등이 있음.
- 지난 2007년 9월 이란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는 이란 중앙은행에 리디노미네이션 검토를 지시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환율: US\$ 1= 9,980 Rial(2009.4월)

2) 유의사항

- 이란인 및 거주 외국인의 해외 출국 시 공식적으로 은행에서 환전 가능한 금액은 1인당 US\$ 3,000이다.
- 국외에서 유입된 외환은 자유로이 반출이 가능하나 입국 시 공항 입국 심사대(Passport Control) 이전에 위치한 은행에서 반입 금액 신고를 전제로 한다.
- 환전은 원칙적으로 은행 및 공식 환전소 이용이 의무적이며, 환전 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 사용하고 남은 현지화는 공항에서 재환전 할 수 있으나 최초로 환전했을 때의 영수증이 필요하다.
- 암시장 환전도 가능하나 환차손을 감수해야 한다.
- 이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현찰이나 여행자 수표를 지참해야 한다.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한국-이란 간 직항로는 2002.12.20일 개설됐으며, 직항로 외에 주로 이용하는 한국-이란 간 항공노선은 하기와 같다.

- 서울 - 도쿄 - 테헤란 (Iran Air)
- 서울 - 이스탄불 - 테헤란 (Turkish Airline)
- 서울 - 두바이 - 테헤란 (Emirate Airline)
- 서울 - 방콕 - 테헤란 (Mahan Air, Korean Airline)
- 서울 - 모스크바 - 테헤란 (Aeroflot)
- 서울 - 홍콩 - 도하 - 테헤란 (Qatar Airways)
- 서울 - 프랑크푸르트 - 테헤란 (Lufthansa Airline)

항공 운임은 약 US\$ 1,000~1,400 수준(이코노미석 기준)이다.

최근 Iran Air는 도쿄-서울-테헤란 간 노선을 적자운행을 이유로 10월 중순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재개되었으며, 이란의 핵개발 문제로 인해 프랑스 Air France 및 영국의 British Airline은 테헤란 취항이 중단됐다.

이란 취항 주요 외국항공편 및 국적

항공사	약어	국적
KLM	KL	네덜란드
Lufthansa	LH	독일
Austrian Airline	OS	오스트리아
Alitalia	AZ	이탈리아
China Southern	CA	중국
Al - Etihad	EY	UAE
Turkish Airline	TK	터키
Aeroflot	SU	러시아
Gulf Air	GF	바레인
Kuwait Air	KU	쿠웨이트
Qatar Air	QR	카타르
Emirates	EK	UAE

2) 국내교통

버스(요금: 정부 버스 200 리알/ 민간버스 1000~1500리알)등 대중 교통 수단이 부족해 테헤란의 경우 승용차 및 택시가 주요 교통 수단으로 활용된다. 택시는 거리 어디서나 잡을 수 있으며,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타는 모스타김 택시(요금: 5km기준 약 1,000리알)와 콜택시가 있다.

현지 출장자의 경우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 요금은 약 30,000리알(US\$ 3~4수준)이다. 호텔 및 식당 등 어느 장소에서나 호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호출 후 10분 이내에 도착한다. 테헤란 시내의 대표적인 콜택시 회사 중 한 곳의 전화번호는(8840-011/20)이며 시내 어느 곳에서나 호출이 가능하다.

이란의 국토는 한반도 면적의 7.5배에 달할 정도로 광대하여 지방 출장의 경우 항공편을 이용하게 되는데 최근 비행기 사고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특히 이란의 미국의 대 이란 제재의 영향으로 노후한 러시아산 군용기를 국내 민항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 출장 항공권 예약 시 기종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3) 국제 통신

이란의 국가번호는 "98", 테헤란의 지역번호는 "21"번이다. 현지에서 한국으로 통화 시 00-82(국가번호)-2(서울 지역번호)-해당전화 번호를 호출하면 되나 현지의 회선 부족으로 국제 전화가 원활히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요금은 한국보다 다소 저렴한 편으로 서울-테헤란 간 통화 시 분당 약 1\$ 수준)

4) 국내 통신

병원 등 공공시설을 제외하곤 공중전화 부스를 보기 힘들다. 여행 중에 시내 통화를 할 경우 근처 가게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 요금은 10리알이나 일반적으로 100리알 동전을 사용함. 이란의 공중전화는 국제통화가 불가능하다.

5) 인터넷 사용 환경

2006년 10월부터 이란정부는 인터넷 속도를 128Kbps로 제한 국내의 반 정치세력 및 서구 문화의 영향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란정부는 민간 ISP 업체들에게 속도를 제한하며, 빠른 광대역 패키지를 제공하지 못하게 지시, 이로 인해 서양음악 및 영화 그리고 TV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반정치세력의 불온자료를 업로드하기 매우 어렵게 됐다. 그러나 대학 및 아카데미센터, 연구기관, 산업단지,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등은 특수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128kbps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최근 이란 정부의 모니터링을 받지 않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했으나 외국 외교관청만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란의 인터넷 사용 환경

구분	용도	속도	월 이용료
위성인터넷	업무용	40KB/초	U\$ 1,300 (단, 초기 설치비 U\$10,000수준)
ADSL	업무용	40KB/초	U\$ 1,700
ADSL	가정용	16KB/초	U\$ 50

6) 특사 운송회사 가격

이란의 특사 운송회사로는 DHL, TNT, EMS, Aramex 등이 있으며, DHL 기준 가격은 아래와 같다.

DHL 소포 송부 비용

(한국 도착기준)

구분	무게	가격(미화)
서류	1kg	49\$
비서류	1kg	60\$

사. 호텔/식당

1) 호텔

주요 호텔

호텔명	등급	연락처 / 위치	가격
Azadi Hotel	5 Star	- 전화: 98-21) 2207-3021/9 - 팩스: 98-21) 2207-3038 - 위치: First of Evin Ave. Tehran	- 리노베이션 중이어서 영업 중단 (2009년 5월 기준) - 언제 재개할 지 미지수
Esteghlal Hotel	5 Star	- 전화: 98-21) 2204-0011/5 - 팩스: 98-21) 2204-7041 - 위치: Mahmoudiye 맞은편, Tehran	- Twin(Double): \$ 146 - Single: \$ 130 - 서쪽 타워(구관) 기준 금액임
Homa Hotel	5 Star	- 전화: 98-21) 8877-3021/9 - 팩스: 98-21) 8879-7259 - 위치: Vanaq Sq. Tehran	- Twin(Double): \$ 143 - Single: \$ 143
Lalleh Hotel	5 Star	- 전화: 98-21) 8896-6021/9 - 팩스: 98-21) 8896-5599 - 위치: Hejab St. 맞은 편 Tehran	- Twin(Double): \$ 134 - Single: \$ 118
Grand Hotel	4 Star	- 전화: 98-21) 8872-1656 - 팩스: 98-21) 8871-3857 - 위치: Motahari st. Tehran	- Twin(Double): \$ 85 - Single: \$ 58

주: 호텔별로 조식 포함 여부 및 서비스 요금, 세금 등이 각기 다르니 투숙 시에는 호텔 또는 KBC를 접촉,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KBC 예약 시 10% 선 할인 가능

한국인 운영 게스트 하우스

호텔명	연락처 / 위치	가격
벳세다 한인의집	- 전화: 98-21)8878-3031 - 팩스: 98-21)8873-1702 - 위치: No 17, East Farzan, Africa Ave. Tehran	\$ 120 - 조식식(한식) 및 세탁 - 공항 픽업 서비스(\$ 30 추가)
우리집	- 전화: 98-21)2205-3799 - 팩스: 98-21)2205-2245 - 위치: No.28, Niloufar Jordan St. Africa Ave. Tehran	\$ 120 - 조식식(한식) 및 세탁 - 공항 픽업 서비스(\$ 30 추가)
인터카라스	- 전화: 98-21)2204-8504 - 팩스: 98-21)8878-9274 - 위치: No.23, Taheri St. Africa Ave. Tehran,	\$ 120 - 조식식(한식) 및 세탁 - 공항 픽업 서비스(\$ 30 추가)
한국집	- 전화: 98-21)2205-8580 - 팩스: 98-21)2205-1274 - 위치: No43, West Atefi Alley, Africa Ave. Tehran	\$ 120 - 조식식(한식) 및 세탁 - 공항 픽업 서비스(\$ 30 추가)

2) 이란 주요 식당

- 테헤란 시내에 이란의 전통음식인 케밥(Kabab) 식당은 즐비함. 중국 식당, 일본 식당, 프랑스 식당, 이탈리아 식당 등도 다수 있으나 이란인 요리사가 조리를 하는 관계로 맛과 질은 기대 이하임.
- 최근 중국인들이 직접 투자하여 개장한 ChaEast 는 중국인이 직접 요리를 하며, 맛과 분위기가 좋아 인기를 끌고 있음. 이란 내 식당 중 최초로 마일리지 적립 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테헤란 이외 지방에는 케밥(Kabab) 식당뿐이며 외국 식당은 거의 없음.
- 이란에 외국 식당이 부족한 이유는 주재국 정부가 외국인에 의한 식당 등의 서비스 산업 참여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식, 일본식, 태국식, 베트남식 등 다양한 아시안 요리를 제공하는 Monsoon 은 KBC 위치와는 약간 떨어져 있으나 비교적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므로 추천할 만함.
- 정통 이탈리아 식당인 boulevard 는 이란에서 보기 드물게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함. 스파게티, 스테이크 등을 추천함.

테헤란 내 주요 외국 식당

구분	식당명	주소	전화
중식	ChaEast	Eastern Atefi St. Next To NITC, Jordan Ave.Africa Blvd	(98-21) 22058184
중식	FATEMI	VALIASR AVE., OPP OF GATEMI,ABDO ALLY, NO.3 TEHRAN IRAN	(98-21)8890-0714 8880-0163
일식	SERYNA	NO.30, BIGAN STR, VANAK SQ, TEHRAN IRAN	(98-21)8877-3735 8877-6301
인도 식당	TAJI-MAHAL	NO.29, SOUTH SHEIKH BAHAI AVE., MOLASADRA AVE., VANAK SQ, TEHRAN IRAN	(98-21)8805-7392/8
아시안퓨전	Monsoon	Gandi Ave.,Corner of 4 th St.,Gandi Shopping Center,#8	(98-21)8879-1982/3
이탈리아식	boulevard	VALIASR AVE., Nahid Blvd, #3	(98-21)22051947
중식	Golden Dragon	To Parkway Crossroad VALIASR AVE, TEHRAN IRAN	(98-21)2204 0508

아. 공휴일

1) 공휴일

- 이란은 이슬람 국가로 관공서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휴무이며, 일반업체는 목요일 오후와 금요일 전일 휴무임. 최근에는 다수 민간기업과 국영업체들이 목요일을 전일 휴무,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 공휴일은 종교와 관련하여 제정되어 있고 상반기에 몰려 있어 현지 출장 시 확인이 필요함. 또 이란의 종교공휴일은 대부분 음력을 사용, 달력에 나와있는 휴일과 실제 휴일과는 1일 전후로 변동되기도 함. 이란정부는 휴일 사이에 낀 날을 하루 전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하며, 음력에 기초한 일부 종교휴일은 전날 밤 달의 모양을 보고 공휴일을 확정하기도 함.

2009년도 이란의 공휴일

기간	공휴일명	비고
9월 20일	Aid Fetr	단식 종료 축제날
10월 14일	Marthrdom of Hazrat Emam Djafar Sadegh	이맘 사데그 순교일
11월 28일	Aid Ghorban	무슬림 희생제
12월 6일	Aid Ghadir Khom	가디르훅의 축제
12월 26일	Tasooa	호세인 부상일
12월 27일	Ashoora	호세인 순교일

2) 출장 지양기간

- 이란의 신년(노르주)은 공식적으로 매년3.21일부터 시작되며 신년 전후인 3.15~4.15은 이란의 연말 연시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대부분 이란업체들이 휴무에 들어가는 까닭에 동기간 출장은 자제하기 바람.
- 라마단 기간(2008년의 경우 9월 2일~10월 1일 30일간)동안에는 대부분의 현지 업체 가 오후 2~3시에 종료하므로 동기간 출장 희망 시 사전확인 필수

자. 관공서 관행

1) 민원 처리

현지 공무원에 대한 뇌물성 선물은 엄격히 금지되나, 감사 표시의 소액 선물은 상호간 좋은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란 관공서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낮고, 일 처리가 더딘 편이며 처리과정이 복잡하므로 관공서에 관련된 일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2)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국가로 상담 시 종교 및 내정에 대한 비판은 삼가야 하며 외국인(여성)의 경우에도 히잡(스카프)을 쓰는 등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넥타이를 매는 것은 현지 관습에 어긋나 법원이나 관공서 출입 외국인에게 넥타이를 풀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여행 시 유의사항

1) 출입국 시 유의사항

- 공항도착 시 체류신고서(소정입국카드 2부 작성)를 하여야 하며, 1부는 입국 시 이민국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출국 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므로 보관에 각별 유의해야 함.
- 이란 입국 시 미\$10,000 이상을 소지한 경우 입국 시 공항에서 보유외환을 신고해야 함. 입국 시 보유 외환을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 한도 내에서 출국 시 반출 가능함.
- 취업 또는 파견근무의 경우는 Work Permit 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함.
- 여성의 경우 공항 도착 시부터 출국 시까지 롱코트 및 스카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함.
- 이슬람 국가인 까닭에 술, 돼지고기, 음란비디오 및 잡지의 경우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함. 또한, 골동품은 반출이 불허되나, 카펫은 1인당 1장(2mx3m)씩 허용됨. (영수증 필히 지참)
- 예방접종의 경우 일반적인 전염병에 대한 방역은 필요 없음.

2) 의복 준비

- 이란은 한반도의 약 7.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로 지역별 기온차가 심하나 수도인 테헤란 및 근교의 경우 4계절이 뚜렷하고 서울과 기온이 비슷한 까닭에 이에 맞게 의복을 준비하면 됨.
- 테헤란 시내의 경우 겨울에도 낮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므로 두꺼운 옷의 준비가 필요하며, 여름에는 기온이 최고 46도까지 올라가나 해발 1,600m의 고지대로 매우 건조하여 한국처럼 무덥지 않아 여름 나기가 서울보다는 수월한 편임.
- 이란은 철저한 회교국인 관계로 여성의 경우 외국인이라도 외출 시 반드시 무릎까지 내려오는 롱코트 및 스카프를 착용해야 함. 미 착용 시는 공항에서 입국이 불가함.

3) 전기규격

- 사용 전력의 전압은 220V, 전류는 50HZ 이며 100Volt 용 전기기구 사용할 때에는 변압기를 사용해야 함.

4) 치안

- 이란의 치안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소매치기 및 도난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국경지방은 치안이 매우 불안하여 최근에는 터키와 인접한 국경지대에서도 인종문제로 소요사태가 일어나 여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대다수 이란인은 외국인에 대하여 호의적인 까닭에 여행자의 안전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이슬람 생활규범 내지 현지관습 등에 따른 각종 금기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5) 택시

-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를 제시하면 거의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음.
- 외국인의 경우 돈이 많다고 생각하여 비싸게 부르나 통상 미화 5달러면 충분함.
- 비즈니스 출장 및 여행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호텔 및 식당 등 어느 장소에서나 콜택시 호출이 가능함.

6) 팁 관행

- 시내에서 택시 이용 시에는 팁을 별도로 줄 필요는 없음.
- 공항에서 포터 이용이나 택시 이용 시 무거운 짐을 옮길 때 10,000리알(1달러=9,800리알) 정도 주면 됨.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길 경우도 10,000리알 정도면 되며 음식점에서는 서비스료로 15~20%를 음식값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별도의 팁을 주는 것이 일반적임.

7) 식수

- 이란의 수도물은 비교적 안전하나 석회석이 다량 포함되어 있음. 이란 여행 시는 생수를 구입해 이용하는 것이 권장됨.

8) 이발소 및 미용실

- 시설은 많이 떨어지나 이용에 큰 불편은 없으며 이발소는 70,000리얄(약 7달러), 미용실은 80,000리얄(약 8달러)정도임.

9) 쇼핑

이란은 캐비어 (철갑상어알), 수공예품, 페르시아 카펫으로 유명한데, 캐비어는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카펫은 기계직의 경우 1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 수제품은 2,000-10,000불 등 종류가 다양하며, 수공예품으로는 동판, 은세공품 등이 인기가 있다.

HANDICRAFTS SHOP

- Handicraft OrganizationAdd: No. 226, Nejat ollahi Ave., Tehran Iran
- 2- Handicraft OrganizationAdd: No. 663, Vali-e-Asr Sq., Tehran Iran

LEATHER SHOPES

- Lederly: Lederly Bldg., Gandi St., Corner of new Highway, Vanak Sq., Tehran Iran
- Omid ShopeTel:(98-21)5563-7526Add: Mesbah St., Pachenar St., Khayam Ave., Tehran Iran
- Khazar Khaz8803-8025 Saman St., South Shiraz Ave., Mollasadra Ave., Tehran Iran

CARPET(HAND MADE)

- Faghihi Kashani Add: No. 42, Bazar Farsh Ave., Tehran Iran
- Kalantary Carpet Shope No. 131, Kafash ha Bazar, Big Bazar, Tehran Iran
- Najm Carpet No. 23, Kababiha Ally, Abas Abad Bazar, Big Bazar, Tehran Iran

CARPET(MACHINE MADE)

- Mahestan Carpet Tel:(98-21)8874-8029 Add: No. 90, Habibi Haj ssani Ally., Seyed Khandan Brdg., Tehran Iran
- Kavir Kashan CarpetAdd: No. 213, After Gas Station, North Sohrevardy Ave., Tehran Iran
- Kavir Yazd Carpet Tel:(98-21)8882-4167Add: No. 421, Opst Gas Station, North Mofate Ave. Tehran

□ GOLD & JEWELRY SHOP

- Amtist ShopAdd: No. 6, Jewelry Bazar, Mohseni Sq., Tehran Iran
- Movahed Jewelry(98-21)2222-0820 No.16, Jewelry Bazar, Mohseni Sq., Tehran Iran
- Jabarnia(98-21)2227-7263Add: Mohseni Bazar, Mohseni Sq., Tehran Iran

카. 유용한 연락처

1) 현지 비상연락처

- POLICE(경찰서): 129
- ACCIDENTS(사고처리): 197
- EMERGENCY(긴급구조): 115
- AIRPORT INFORMATION : 9111
- DOMESTIC AIR INFORMATION : 199, 66012945
- INT'L AIR INFORMATION : 199, 66012945
- RAILWAY(철도안내): 5556114-5
- TELEGRAPH(전보): 120
- 전화번호 확인: 88601000, 8601515
- POST OFFICE(우체국): 6676087-9
- GENERAL HOSPITAL
 - MEHR : 8850080-9
 - MEHRAD : 8874741-9
 - APADANA : 888270457
 - PARS : 6650051-9
 - DAY : 88785811-9

2) 한국 기관

- 대사관
 - 주 소: No. 18, West Daneshvar st., shaikhbahaei Ave. Vanak sq., Tehran, Iran.
 - 근무시간: 08:30`16:30(일~목요일)
 - 공휴일: 금, 토요일, 이란 공휴일- 영사업무관할 지역: 이란 전역(영사관 개설 없음)
 - 전 화:(98-21)8805-4900, 팩 스:(98-21)8805-4899
- KOTRA 테헤란 KBC
 - 주 소: No.18, 12th Alley, Velenjak, Tehran,Iran, P.O.BOX:11365-7877, Tehran
 - 근무시간: 08:30`16:30(일~목요일)
 - 전 화: (98-21)2217-4005/7, 팩 스: (98-21)2240-2475
 - 설립연도: 1964년 4월 1일
- 한국인 학교
 - 주 소: No.21.4Th St.,Bucharest Ave.,Tehran Iran
 - 전 화: (98-21)8873-4910
 - 팩 스:(98-21)8873-8699
 - 교 사: 한국인 교사 3명
 - 학 년: 1~6학년

- 한인협의회
 - 설립일: 1974년 1월
 - 회 장: 조승미
 - 교민 수: 약 600명(현지 주재상사 및 공관원, 건설직원 모두 포함)
 - 전 화: (98-21)8805-5322
- 천주교 성당
 - 전 화: (98-21) 6670-3210
- 테헤란 한인교회
 - 전 화: (98-21) 6670-8698
 - 팩 스: (98-21) 6672-0200
 - 주 소: #19, Si-e-Tir Avenue, P.O.Box 11365-119, Tehran, Iran
 - 홈페이지: www.tehranchurch.com

3) 이란 정부기관

-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3211: 66706041
- 석유부(Ministry of Petroleum): 6151: 66469888
- 광공업부(Ministry of Industry& mines): 81061: 88906563
-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88893620-9: 8903945
-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 Economy): 3251
-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61311: 6653061
-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8901081-7: 88801995
- 체신부(Ministry of Post, Telephone & Telegraph): 8111: 88601131
- 노동사회부(Ministry of Labor & Social Affairs): 9930031-9: 9938338
- 주택 및 도시개발부(Ministry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Tel: 88779464, 8884026: 88790162
- 도로교통부(Ministry of Roads & Transportation): 66463153: 66417218
- 기획예산청(Planning & Budget Organization): 3271: 33274064
- 테헤란시청(Tehran Municipality): 88846000: 8833377

4) 정부산하기관/경제단체

- NIOC(National Iranian Oil Co.): 66412205 Fax : 66412352
- NPC(National Petrochemical Co.): 88820021 Fax : 88821726
- NIGC(National Iranian Gas Co.): 8813333-2 Fax : 88824750
- NITC(National Iranian Tanker Co.)Tel : 6671081-9, 21939, 21932453: 22228065, 2224537
- IDRO(Industrial Development & Renovation Organization)Tel : 88825921: 8832328
- ISIRI(Institute of Standard & Industrial Research of Iran)Tel : 88905305: 88802276
- IRISL(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 88845061: 8837999
- IWPC(Iran Water Power Co.): 88801038-9Fax : 88907635
- Iran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 MinesTel : 88846031-9 Fax : 8882511Add : No. 254, Taleghani Ave., Tehran Iran
- Iran Int'l Exhibition co.Tel : 21911- Fax : 2205-1775Add : Vali-asr Charmran Expressway, Tehran IranBox 19395-0491, Tehran, Iran

5) 은행

- Central Bank of Iran-: 64461-: 33117916
- Bank Melli- Tel: 3231, Fax: 33916700, 3114431
- Bank MellatTel: 32491-5, Fax: 66712133
- Bank SaderatTel: 66700041-9-, Fax: 66704676, 6721155
- Bank SepahTel: 33110010-9, Fax: 33907168
- Bank TejaratTel: 81041-9, Fax: 88828304

6) 언론

- Islamic Republic News Agency(IRNA)- Tel: 8892051-9-, Add: Vali Asr St. Tehran
- Islamic Republic of Iran Broadcasting(IRIB)- Tel: 2160, Add: Vali Asr, Jam-e-Jam Tehran
- Iran News- Tel: 88880231-2, Add: P.O Box 15115 Tehran
- Tehran Times- Tel: 88809500-, Add: 32 Kouchen Bimeh Nejatollahi Ave. Tehran

7) 대학

- Tehran University- Add: Enghelab St. Tehran
- Azadi University- Tel: 22588168-72-, Add: No. 9 Pasdaran Neyestan Tehran

8) 항공사

- Iran Air: 88808472, 88808475
- Alitalia: 88711512, 8871189, 88712707
- K. L. M.: 88732447, 88751630-1
- Lufthansa: 88723382-7, 88723482-7
- E. K.(UAE Airlines): 88712700, 88716412
- Turkish Air: 88737383, 88737464
- Gulf Air: 22253274-5, 22253284-7

9) 관광명소

□ 테헤란

Tehran이란 명칭은 Tah(아래)와 Ran(산등성이)의 합성어로서 ‘산 아래 마을’을 의미하며, 도시 북쪽에서 동서를 가로지르는 Alborz산맥 아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수도 테헤란은 Seljuk 왕조 때 조그만 부락이 형성된 이후 1789년 Qazar 왕조가 수도로 정한다. 1900년대 초까지 인구 30만의 소도시였으나 Pahlavi 왕조 이후 급격히 팽창, 현재는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세계적 도시로 성장했다. 주요 관광명소는 아래와 같다.

□ Saad Abad 궁전

과거 카자르 왕의 여름 별장이었던 궁전으로 1930년 Reza왕이 8년에 걸쳐 증축한 궁전으로 18개의 다양한 건축 양식을 보이며 이슬람 혁명 이후 10개의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이란의 찬란한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고 있음.

- Green Palace
 - 건물 외관이 녹색이라 Green palace라는 이름을 얻게 된 궁전으로 Reza 왕의 개인 접견실로 사용되었으며, Iran mirror, Persia Carpet 등 아름다운 이란의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 Nation's palace
 - Reza왕이 거주했던 건물로 2층으로 되어있음. 응접실, 대기실, 리셉션 홀, 만찬장, 침실로 구성되었으며, 복도에 입상과 장식장의 China ware, 유럽에서 제작된 가구, 샹들리에, 그림 그리고 이란 신화를 주제로 만들어진 4개의 큰 벽장식이 볼거리임.
- Nation's museum
 - 이슬람 이전 작품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인도, 극동아시아, 에스키모, 마야, 현대 이란 예술 작품을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음.
- Fine arts museum
 - 팔레비 왕의 부인인 Farah가 영국인 수집가로부터 사들인 이란의 고대 왕조 때의 유화가 볼거리. 3층으로 되어 있음.
- Behzad museum
 - 이란 근대미술의 선구자인 Hossein Behzad의 작품 전시
- Abkar museum
 - 20세기 이란의 여성 미술가 Klara Abkar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음. 이란의 신화와 전통을 주제로 삼음.
- Mir Emad museum
 - 18세기의 유명한 Calligraphy(이슬람 서체)작가인 Mir Emad의 작품을 포함 10~19세기 Calligraphy가 전시되어 있음.
- Museum of anthropology
 -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박물관으로서 이란인의 전통적인 생활상을 보여줌.
- Water museum
 - 고대의 이란의 관개 전통 기술 및 기구 전시
- Military museum
 - 고대 아케메니아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군사 장비 전시

□ Niyavaran 궁전

팔레비 시대의 대표적 궁전의 하나로 카라자 왕조(1795~1925)시 왕의 거처로 이용됐으나 1948년 팔레비 왕조 시대에 재건축이 시작되어 1967년 완공됐다. 5 h/a의 넓은 정원에 세워진 200평방미터 건물 내부에 진기한 카펫, 화려한 응접세트 및 조각물들이 전시되어 있어 팔레비 왕조 전성 시대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다.

□ 카펫 박물관

두 개의 홀과 광대한 지하전시장에 페르시아 카펫이 시대별, 지역별로 구분, 전시되어 페르시아 카펫 발전의 역사 및 현황을 관람할 수 있다.

□ 보석 박물관

사파비드 왕조 때부터 인도, 오토만터키,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국가들로부터 사들인 진귀한 보석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 후 이민족과의 전쟁 등으로 많은 보석류들이 분실, 약탈되기도 했으나 아직 상당량이 보관되어 있다. 유명한 보석으로는 Kiani 왕관, Nadir 왕좌, 보석으로 만든 지구본, 공작 왕좌 등이 있다. (90%는 이란산, 10%는 외래 보석)

□ 테헤란 Bazar

중동 최대의 재래시장 중의 하나이며, 10Km가 넘는 미로로 구성된 이란의 재래시장으로 카펫, 귀금속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거래된다.

□ 중동 최고봉 Damavand

북동지역 Alborz 산맥에 위치(해발 5671m), 정상은 만년설로 덮여 있다. (파라마운트 영화사 로고에서 보이는 산과 유사)

10) 이스파한

테헤란에서 약 481Km떨어져 있으며, 셀주크 왕조와 Safavids왕조의 Shah Abbas(1587~1629) 이후의 수도로서 이 무렵 『세계의 절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번성하였으며 이란에서 유적이 가장 잘 보존된 이란 제1의 관광도시임. 이스파한의 주요 관광 명소는 아래와 같다.

□ Imam 광장

가로180m, 세로 550m의 광장으로, 이슬람 문양의 Dome 과 Minaret를 가진 Imam Mosque와 Sheikh Lotfollah Mosque가 있다.

□ Four Garden

4개의 정원 사이로 3개의 도로가 강으로 향하는 수로와 함께 수km에 걸쳐 평행으로 이어진 Safavids 왕조 시대의 정원

□ Pol-e-Khaju(하쥬다리)

17C에 건설된 Sassan조 양식의 아름다운 다리

□ Jolfa Church

17C에 건설된 아르메니아인의 교회로서 세계에서 제일 작은 성경책, 성경구절을 도금한 머리카락 등 종교 유물 소장

□ Chehel Sotun

40개의 기둥 (물에 비친 그림자 20개 포함)을 가진 궁전, 벽화가 유명하다.

11) 쉬라즈

Hafez, Sadi, Molla Sadra 등 유명한 문인 및 학자가 배출된 곳으로 『지식의 전당』이라고 불리며, 수도 테헤란에서 895KM 떨어져 있음. Persia 어원이 된 Fars주의 중심 도시로서 주변지역이 아카메니드 왕조의Darius 왕(BC 6C) 이후 및 혼란기의 Zand 왕조(18C)의 수도였던 역사적인 도시로 페르세폴리스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쉬라즈의 주요 관광명소는 아래와 같다.

□ Persepolis

다리우스 및 후계자의 궁전으로, 이집트, 바빌로니아 등 BC6C경의 중근동의 건축 양식이 혼합된 유적이다. Alexander 대왕 및 아랍족의 침입 시 대부분 파괴되어 기둥, 벽면 등 일부만이 남아 있으나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화를 잘 보여준다.

□ Naqsh-e-Rostam

다리우스 및 후계자들의 무덤으로서 거대한 암벽동굴에 만든 무덤 사이사이에 영웅적 정복 행위를 기리는 부조를 볼 수 있으며, 바로 옆에 정교한 모습의 Sassanian 배화교 제단이 우뚝 서 있다.

□ Shapur relief (Kazerun)

Sassan 왕조의 로마 및 아랍에 대한 전승기념물로 거대한 암벽 중간에 승리의 장면을 새겨 놓고 있다.

12) 타브리즈

수도인 테헤란에서 서북쪽으로 775KM 떨어져 있으며 유럽으로 이어지는 국제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팔레비 왕조 때 카펫 문화를 국가 산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카펫 생산 도시로 지정됐던 곳이다. 현재도 고가의 카펫이 생산되는 공업도시이다. 타브리즈의 주요 관광 명소는 아래와 같다.

□ 마스제데 카부드(일명 '블루 모스크')

지한 왕정(1389~1420)때 건축된 모스크

□ 라사드 호네

약 500년 전 천문학과 기상을 연구했던 옛 천문기상대

13) 카스피해 연안

테헤란 북부지역에 위치한 카스피해는 테헤란에서 승용차로 약 5시간(491Km)소요되며 캐

비어 생산으로 유명하다. 세계 최대의 담수호(한반도의 2배)로서 남부 해안 600km 전체가 휴양지로 조성되어 있다. 연안 휴양도시로 라쉬트, 람샤르, 찰루스 등이 유명. 수상스키, 요트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자연원시림 지역이 많고 습도가 높아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휴양지로 인정받고 있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전시회명	개최기간
3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Transportation & Transit	1월 13일~16일
2nd international exhibition of Hotel travel & Tourism services & equipment	1월 13일~16일
16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Candles & Decorative Lights	1월 13일~16일
15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pack, print & related machineries	1월 24일~27일
5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marketing & advertising & related industries	1월 24일~27일
18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home & office furniture, (decoration & interior design)	2월 4일~8일
7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machineries equipment accessories	2월 17일~20일
First International Exhibition on Entertainment for Children & Teenagers training & supplemental educational tool parks & funfairs	2월 17일~20일
1st international exhibition of Halal food	2월 28일~3월 3일
The 1st Iran Horticulture International Exhibition	4월 9일~12일
The 14th Oil, Gas & Petrochemical International Exhibition (Iran Oil Show 2009)	4월 22일~25일
The 1st Innovation & research Exhibition	4월 30일~5월 3일
The 2nd Decorative Stones□ Mine□ Machinery & Equipment International Exhibition	5월 5일~8일
The 7th Kitchen, Bath, Sauna & Pool Equipment International Exhibition	5월 14일~17일
The 16th Food, Food Technology & Agricultural International Exhibition (Iran Agro Food 2009)	5월 24일~27일
The 12th Medical, Dental & Pharmaceutical Equipment International Exhibition (Iran Med 2009)	6월 11일~14일
The 3rd Iran Lab International Exhibition	6월 11일~14일
The 3rd Hotel Travel & Tourism Services & Equipment International Exhibition	6월 24일~27일
The 8th Police, Safety &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 Exhibition(IPAS2009)	7월 15일~18일
The 9th Building Industry International Exhibition	7월 28일~31일
The 1st Wood Industries, Paper & Related Equipment Exhibition	8월 17일~20일
The 8th Poultry, Livestock & Related Equipment International Exhibition	9월 23일~26일
The 9th Tehran Industry International Exhibition. (T.I.I.E 2009)	10월 6일~9일
The 8th Construction Installation, Heating, Cooling, Ventilation	10월 6일~9일
The 15th,Home Textile, Machineries, Raw Materials, Embroidery Machineries &Textile Products (Irantextech2009)	10월 19일~22일
The 8th Biscuit, Confectionary & Chocolate Machineries & Raw Material International Exhibition	10월 19일~22일
The 7th Urban Transportation & Services International Exhibition	'10년 1월 24~27일*
The 16th Detergents, Hygienic, Washing Products & Related Machineries International Exhibition	11월 11일~16일
The 4th Auto Parts International Exhibition	11월 11일~14일

The 10th Tele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 Networking International Exhibition (Iran Telecom 2009)	11월 21일~24일
The 15th Electronic, Computer & E-Commerce International Exhibition	11월 25일~28일
The 9th Home Appliances International Exhibition	12월 5일~8일
The 2nd Cement, Concrete, Construct Technology & Related Machineries International Exhibition	12월 10일~13일
The 18th Tile, Ceramic & Sanitary Wares International Exhibition	12월 10일~13일
The 9th Paint & Resin, Composite & Industries Coating International Exhibition	12월 15일~18일

주: 개최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11월 2일-5일 개최 예정이었던 <The 7th Urban Transportation & Services International Exhibition> 는 2010년 1월 24-27일로 연기.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 이란 무역진흥기관(TPO) 홈페이지
- www.tpo.ir
- 이란 투자청(OEITAI) 홈페이지
- www.oietai.org
- 이란 상공회의소(Iran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and Mines) 홈페이지
- www.iran-investment.org
- 이란 중소기업청 (ISIPO) 홈페이지
- www.iraniec.ir
- Kish Free Zone Organization 홈페이지
- www.kish.ir
- Anzali Free trade zone 홈페이지
- www.anzali-fz.org